

碩士學位論文

중 · 고등학교 영어학습자의 연어
(collocation) 이해 정도와 지도 방안

- 연어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朴 暉 柱

2008年 8月

碩士學位論文

중 · 고등학교 영어학습자의 언어 (collocation)이해 정도와 지도 방안

- 언어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梁 彰 容

朴 晔 柱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8月

朴 晔 柱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8年 8月

<국문초록>

중 · 고등학교 영어학습자의 언어(collocation)

이해 정도와 지도 방안

- 언어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朴 玄 柱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梁 彰 容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능력의 한 요소인 어휘는 언어학습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기존의 어휘습득은 개별적 어휘 학습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어휘 교육의 초점은 어휘 형태(form)의 습득에 맞춰져 어휘의 의미적, 사용적 측면은 크게 강조되지 못하였다. 90년대 들어 어휘접근법(lexical approach)의 등장은 언어가 개별단어의 모임이 아니라 어휘들이 한 덩치(chunk)로서 총체적 사용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어휘 덩치는 문법적으로 구조화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알맞은 사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어휘 덩치 연구에서 언어(collocation)가 그 많은 연구의 관심을 받아 왔다. 언어란 어휘들이 습관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결합관계를 말한다. 언어를 아는 것은 어휘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에서 정확성과 유창성을 향상시키는데도 효과가 입증되었다.

언어에 대한 연구는 언어와 어휘지식과의 관계, 학습자들의 언어의 어휘적, 문법적 유형의 이해정도, 언어 오류 양상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문장이나 담화 내에서의 언어의 이해, 즉 수용적 지식(receptive knowledge)을 밝히는 데에 그 초점을 두었고 학습자들의 언어를 직접 사용하는 표현적 지식(productive knowledge)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진행 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언어의 유형 중 문화적, 화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살펴보았다.

첫째, 중 · 고등 학습자들의 영어 언어의 전반적인 수용적 지식과 의사소통과 관련된 언어의 표현적 지식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 본 논문은 200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둘째, 영어 학습정도와 연어의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고등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따른 연어 이해관계도 연구해보았다. 셋째, 학습자들의 폭넓은 연어 유형의 이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적, 화용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연어 유형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직 영어교사의 연어 이해와 지도 실태에 대한 설문을 통해 연어 사용 양상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연어 유형에 따른 학습자들의 이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어 유형을 ‘형용사+명사’ 연어, ‘통사적’ 연어, ‘문화적’ 연어로 분류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형용사+명사’ 연어 15문항, ‘통사적’ 연어 15문항, ‘문화적’ 연어 20문항이다. 학습자들의 연어 수용적 지식과 표현적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유형을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성하였다. 선택형 문항에서 ‘형용사+명사’ 연어는 4지 선다형으로 구성되었고 ‘통사적’, ‘문화적’ 연어는 학습자들에게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서술형에서는 해당 연어를 사용하여 괄호를 채우도록 하였다. 설문을 통한 학습자들의 연어 이해 정도와, 유형별 연어 사용 실태, 학업성취도와 연어지식 관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습자의 연어 이해 정도는 총 문항 중 50% 못 미치는 낮은 반응을 보였다. 설문 응답에서는 서술형보다 선택형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직결되는 연어의 활용과 관련된 표현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설문에서 연어능력이 낮은 학습자보다 연어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영어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모든 집단의 학습자들은 연어 유형별 중 ‘형용사+명사’의 연어를 가장 어려워하였고, 어려움의 정도는 ‘문화적’ 연어, ‘통사적’ 연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용사+명사’ 연어의 연결은 단어들의 결합이 고정되지 않아 학습자들이 모국어에서 사용되는 형용사들이 의미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합시키는데 원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어 사용 및 지도 실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보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가 연어의 개념을 알고 있지만 실제 수업에서 연어지도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연어 습득의 필요성과 연어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많은 교사가 공감하고 있었다. 연어와 언어 기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어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모든 영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특히, 연어가 말하기와 쓰기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연어가 실제 의사소통에서 표현적 지식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외국어 학습의 목표인 의사소통 성공에 중요한 요소인 연어능력

에 대한 이해 및 사용능력이 중·고등학습자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어 사용에 대한 표현적 지식이 낮음은 학습자들의 연어사용이 적극적 어휘 습득과 활용에 연결되고 있지 못함을 말해준다. 현직에 있는 교사들의 설문 결과는 연어 지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학습에서 연어 지도에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거 전통적 개별 어휘지도에서 관련어휘를 문치로 연계시켜 가르치는 연어 지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사는 효율적인 연어 지도방법을 개발하여 학습자들의 개별 어휘 능력 뿐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목 차

국문초록	i
표목차	vi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4
2.1 어휘학습의 추이	4
2.2 의사소통과 어휘학습	7
2.3 연어의 정의	10
2.4 연어의 분류	13
2.5 연어의 선행연구	18
2.6 연어학습의 의의	22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27
3.1 연구 목적	27
3.2 연구 대상	27
3.3 연구 방법 및 내용	28
3.4 연구 문제 및 가설	30
IV. 연구 결과 및 분석	32
4.1 연어 이해 정도	32
4.2 유형별 오류 양상	35
4.3 수준별 연어 이해 정도	37

4.4 학습자 수준별에 따른 언어 유형별 이해정도	40
4.5 문항별 언어 이해 정도	43
4.6 언어지도 현황 및 분석	52
V. 효과적인 언어 지도방안	55
5.1 언어 유형별 지도 방법론	55
5.2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지도	58
VI. 결론	64
참고 문헌	68
ABSTRACT	73
<부 록 1>	76
<부 록 2>	81
<부 록 3>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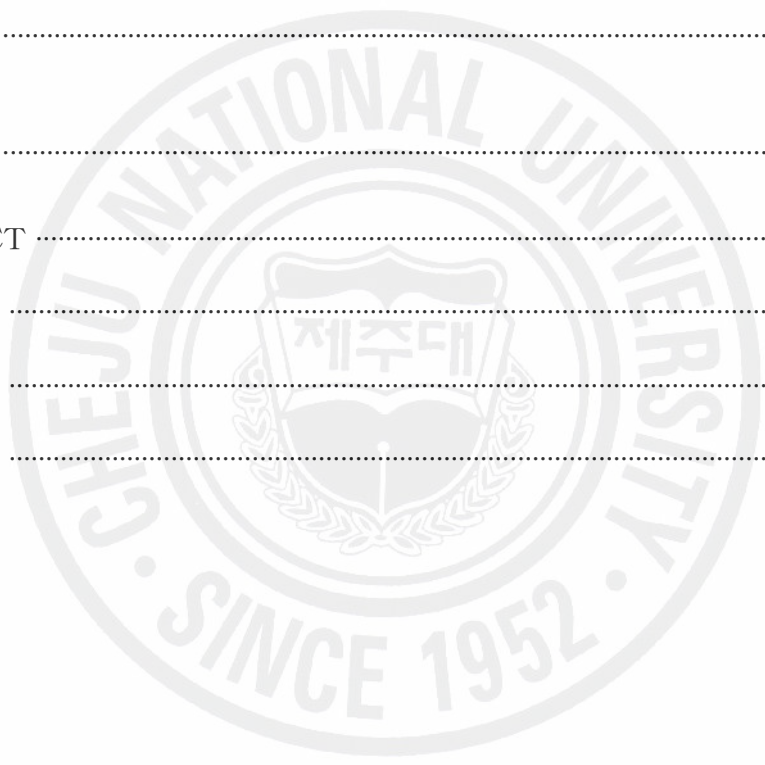


표 목 차

<표 1> Benson, Benson, 과 Ilson 의 연어의 연속선 상	12
<표 2> Hill(2000)의 연어 분류	13
<표 3> Conzentt의 연어의 연속선 상(2000)	14
<표 4> Benson, Benson, 과 Ibsen(1997)의 어휘적, 문법적 연어의 하위유형 ...	16
<표 5> Howarth(1988)의 연어분류	20
<표 6> 사용된 유형별 연어 목록	29
<표 7> 선택형 질문에 대한 중학생 반응 및 응답률	32
<표 8> 서술형 질문에 대한 중학생 반응 및 응답률	32
<표 9> 선택형 질문에 대한 고등학생 반응 및 응답률	33
<표 10> 서술형 질문에 대한 고등학생 반응 및 응답률	34
<표 11> 연어 유형별 연어 오류 양상 : 선택형	35
<표 12> 연어 유형별 오류 양상 : 서술형	35
<표 13> 연어 유형별 오류 양상 : 선택형	36
<표 14> 연어 유형별 오류 양상 : 서술형	36
<표 15> 중학생 수준별 집단에 따른 선택형 평균점수	38
<표 16> 중학생 수준별 집단에 따른 서술형 평균점수	38
<표 17> 고등학생 수준별 집단에 따른 선택형 평균점수	39
<표 18> 고등학생 수준별 집단에 따른 서술형 평균점수	39
<표 19> 중학생 수준별에 따른 연어의 유형별 이해 정도: 선택형	40
<표 20> 중학생 수준별에 따른 연어의 유형별 이해 정도: 서술형	40
<표 21> 고등학생 수준별에 따른 연어의 유형별 이해 정도: 선택형	42
<표 22> 고등학생 수준별에 따른 연어의 유형별 이해 정도: 서술형	42
<표 23>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인 문항들..	44
<표 24>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문항들	45
<표 25> 연어지도 현황	52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언어를 배우는 목적은 학습한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밑바탕이 되는 요인을 어휘라고 할 수 있는데 어휘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러 학자들은 언어 습득과 사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어휘학습을 강조하였다(Bachman 1990, Canale 과 Swain 1980, Meara, 1980). 어휘를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범주로 포함시켜 어휘의 중요성에 대해 발음, 문형, 문장구조와 함께 언어 능력을 이루는 요소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Hultfors(1986)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도 의사소통에 있어서 음운적인 실수보다 어휘적 실수가 더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휘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였다. 언어학습에서 의사소통능력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어휘 지도를 위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활동은 크게 강조되지 못하였다(Nunan, 1999).

어휘 지도방법은 교수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 전통적 어휘 학습은 학습자가 문어체로 된 텍스트를 읽기 위해 실제 사용과는 거리가 먼 어휘목록을 암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구조주의 영향을 받은 어휘 교육에서는 의미(meaning)보다는 형태(form)에 초점을 두어 문법적 구조 틀 안에 어휘를 대입하여 가르쳤다. 구조주의의 영향으로 어휘를 언어학습의 두 개의 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학습되는 어휘의 의미적 측면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하였다. 의미론(semantics)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어휘의 구조적 측면보다 의미가 강조되었고 어휘를 독립적으로 인식하여 개별적으로 가르쳤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어휘들의 개별 의미는 알지만 단어와 단어 간의 결합 양상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의미가 통하는 단어들의 배열은 의사소통의 오해를 불러오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었다. 예를 들면, 상한 우유의 의미를 가진 명사구는 'sour milk' 이지만 학습자는 이 명사구를 이루는 어휘를 선택할

때 ‘상한’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들 가령 ‘spoiled’, ‘rancid’, ‘rotten’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는 문법적, 의미적으로는 옳지만 그 사용에 있어서는 상황에 적절하지 못하다. 즉 ‘milk’는 오직 ‘sour’와 함께 쓰이고 ‘rancid’는 ‘bacon’, ‘butter’에 ‘rotten’은 과일이나 빵에 주로 함께 쓰인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어휘와 문법을 개별적으로 보고 가르치는 전통적인 어휘지도는 적절한 어휘의 사용과는 거리가 멀었을 뿐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70년대 들어서 어휘를 보는 관점을 기존의 어휘지도방법과는 다르게 어휘를 문치, 연어로 본 어휘접근법(lexical approach)이 등장하였다. 어휘접근법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은 문법, 기능, 의미 등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휘(lexis), 즉 낱말과 낱말의 결합(word and word combination)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외국어 학습의 어휘교육에 있어 연어구조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어휘접근법에서는 언어를 개별어휘와 문법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문치로 보았다. 연어라는 틀 안에서 문법과 어휘를 통합하는 어휘들의 덩어리가 학습자의 어휘능력 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Lewis, 2000: 153).

연어를 기반으로 지도 했을 때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강필경(2006: 55)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근, 문장중심 어휘지도가 의사소통능력과 직결되는 언어의 생산적인 측면에 도움이 된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하였다. 어근, 문장 중심 어휘학습이 어휘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 따로 학습했을 때보다 생산적 어휘의 장기 기억을 돕고 회상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권양희(2005: 60)의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어를 통한 어휘학습과 전통적인 어휘교수방법인 사전적 정의 중심 어휘학습을 진행 한 결과 연어와 함께 학습한 실험집단이 어휘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들은 어휘접근법의 핵심인 연어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Hill(2000: 47)은 2,000개의 개별어휘를 아는 것보다, 2,000개의 개별 단어에 대한 연어적 능력(collocational competence)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더 훌륭한 의사소통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Rudzca *et, al.* (1981)은 제 2 언어 습득에서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 데 있어 부딪치는 어려움 중 하나는 단

어들의 언어적 특성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습자가 언어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안다면 어휘 습득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Bahns와 Eldaw(1993)는 언어를 아는 것이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올바른 발화와 학문적 쓰기, 말하기, 더 나아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사례는 어휘학습에서 언어 지도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성공적인 의사소통과 제 2 언어학습의 목표는 효율적인 언어의 이해와 학습 방법과 직접 연관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 2 언어학습자들의 언어사용 실태와 언어 지도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 학습자들의 영어 언어의 전반적인 수용적 지식(receptive knowledge)과 의사소통과 관련된 언어의 표현적 지식(productive knowledge)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영어 학습정도와 언어의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고등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따른 언어 이해관계를 연구해보았다. 셋째, 학습자들의 폭넓은 언어 유형의 이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적, 화용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언어 유형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설문을 통해 중·고등학교 영어교사의 언어 이해와 지도실태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2.1 어휘 학습의 추이

영어 교육의 흐름은 과거 전통적인 문법 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에서 현재의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목표어의 고전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문법을 가르치고 번역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반발로 등장한 직접 교수법(Direct Method)은 외국어와 모국어의 습득을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이 방법은 외국어를 모국어의 번역과 문법 규칙의 설명을 배제하여 자연스러운 외국어 습득을 강조하였다. 이후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에 따른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에서는 언어를 습관의 체계(habitual system)로 보고 언어가 자동적으로 습관화가 될 때까지 문형연습(pattern drills)을 하게 하였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외국어 학습에서 의사소통 성공을 목적으로 두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법적, 담화 · 기능적, 사회 언어학적 요인들을 학습에서 중요하게 다룬다 (Brown, 2007: 241).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어휘학습은 목표어로 된 문학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어휘들을 주로 다루었다. 학습자들을 이중 언어사전(bilingual dictionary)을 사용하여 어휘를 모국어로 해석하도록 지도한다. 실제 어휘지도는 동의어와 반의어를 찾도록 하고 라틴어나 회랍어의 어근(root)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Kelly, 1969). 직접 교수법은 어휘 교육에 있어 의미를 직접 번역해서 설명하는 것을 지양하였다. 형식적인 문법중심과 어휘 선택이 문법을 위한 문법 번역식과 달리 직접 교수법에서는 문장중심, 표현중심 안에서 어휘를 선택하고 지도하였다. 어휘는 그림, 사진을 통해 의미를 제시 하였고 추상적 어휘는 개념의 연상을 통하여 가르쳤다(Richards & Rodgers, 1986: 9-10). 그러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되는 어휘지도는 이

루어지지 않았고 학습자들 스스로가 어휘를 습득, 이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어휘의 의미,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언어의 형식적인 면을 강조하는 구조주의의 영향에 따른 청화식 교수법에서 말하기, 듣기 등의 음성 언어가 강조되었고 어휘지도는 소홀히 다뤄졌다. 언어 학습에서 문장 안에서의 어휘의 기본 문형에 대한 반복, 기계적인 암기 학습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문형 연습에 필요한 만큼의 어휘와 그 의미만 소개되어 어휘의 실제 사용적 측면은 무시되었다.

언어 학습에서 어휘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어휘의 의미중심을 특징으로 한 개념 및 기능 교수요목(Notional-Functional Syllabus)이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개념 및 기능 교수요목은 학습자가 목표언어인 외국어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교수요목이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역할, 심리적인 태도, 대화의 장소와 시간, 활동 상황 등의 넓은 영역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더 이상 문법은 교사들의 주요한 초점이 될 수 없고 주된 초점은 학습자의 대화 목적을 위한 언어 기능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Wilkins, 1972: 4-5). 의미를 강조한 개념 및 기능 교수요목은 청각 교수법의 어휘지도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Without grammar very little can be conveyed.

Without vocabulary nothing can be conveyed (Wilkins 1972: 111).

문법없이 거의 의미 전달이 불가능하지만, 어휘없이 그 어떤 것도 의미 전달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어휘지도에서 형식보다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개념 및 기능 교수요목에서는 자연히 언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교수요목이 구성되고 언어 연구에서 의미론의 발달과 함께 어휘지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1970년대 들어서 어휘의 의미 분야를 다루는 어휘의미론(lexical semantics)의 등장은 어휘학습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였다. 어휘 의미론에서는 어휘의 형식에 대한 의미의 연합관계, 의미의 변화와 발전, 비유적 용법, 문장의 의미 관계 등이 다루어졌다. 뒤이어 어휘의 의미와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을 강조하는 의사

소통 중심 교수법이 등장하였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는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언어 구조, 의미에서 확장된 화용적 지식¹⁾, 사회 언어학적 지식이 언어학습에서 강조되었다.

1990년대 이르러 어휘적 접근법에서는 언어를 구조와 단어를 포함하는 문치라고 보고 이러한 어휘 문치를 기본 어휘단위에 포함시켰다(Lewis, 1997). 어휘 접근법에서는 문맥 속에서의 어휘 뿐 아니라 관련 어휘들의 결합에 대한 지식을 한 번에 학습할 수 있었다. 어휘는 문법적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으므로 어휘와 문법을 따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단어의 결합을 익히는 어휘 학습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어휘접근법에 대해 Lewis(1993)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

It is based on the idea that an important part of language acquisition is the ability to comprehend and produce lexical phrases as unanalyzed wholes or "chunks" and that these chunks become the raw data by which learners perceive patterns of language traditionally thought of grammar(Lewis, 1993: 95).

언어 습득의 중요한 부분으로 어휘를 분석되어지지 않은 전체로서의 문치로 이해하고 생산하는 능력이 어휘접근법의 주장이다. Lewis는 언어의 기본은 어휘(lexis)라고 보고 어휘는 분석되지 않은 전체(unanalyzed whole), 문법화된 어휘(grammaticalized lexis)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언어를 발화한다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서 어휘들을 알맞게 결합시키고, 결합된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언어 교육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결합된 어휘를 사용할 경우 의사소통에서 어휘의 의미나 결합이 자연스러워 정확성과 유창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 접근법의 대표적 학자인 Nattinger와 DeCarrico(1992)에 따르면 어휘 접근법은 대부분 일상대화에서 들을 수 있는 암

1)Bachman(1990)은 화용적인 지식(pragmatic knowledge)은 언어 사용자가 문장, 담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의사소통 기능을 언어 사용 환경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지식이라고 말한다. 사회 언어학적 지식(sociolinguistic knowledge)은 화용적 지식에 포함되는 하위 지식으로 방언이나 변이형, 변인, 관용 표현, 문화적 지식등의 언어 환경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지식을 말한다.

기된 문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미 만들어진 문형을 적절한 상황에 사용하여 의사소통 전개에 도움을 준다.

어휘 학습의 추이를 요약하면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어휘학습에서 의미론의 영향에 따라 어휘의 의미를 형식보다 중시하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어휘의 결합 속에 문법 요소가 있는 어휘 문치, 연어의 개념으로 가르치는 어휘접근법이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상황에 따른 의미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 즉 문장 수준을 벗어난 담화, 문화, 사회적 환경에서 어휘의 맥락적 의미를 강조한다(Larsen-Freeman, 1986).

2.2. 의사소통과 어휘학습

의사소통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언어적(verbal), 비언어적(non-verbal)기호를 사용하여 상호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이다(Schmidt, 1981).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그 전달에 있어 어휘의 의미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어휘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네 가지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1980년대 이후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의 등장함에 따라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습득과 활용은 중요한 활동영역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Seal(1991)은 어휘학습이 중요하게 대두된 원인을 언어의 구조에 대한 학습보다는 언어의 사용을 강조하는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으로의 전환에 있다고 하였다. 정선옥(2000: 11)은 언어 교수의 목적을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두었고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그들의 어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Krakowian(1984)은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에 있어서 발음이나 통사적인 구조보다는 어휘 학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In communication-oriented teaching the most pressing concern for the learner is the need to master an adequate foreign-language vocabulary; the learning of syntax or pronunciation is, in the whole, comparatively less important in developing the ability to successfully

interact in the target language (Krakowian, 1984:26).

Ludwig(1984)은 원어민 화자도 의사소통에 있어 어휘상의 오류가 다른 오류보다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의 핵심이라 하였다.

Native speakers find errors in vocabulary more irritating than most other errors because they defeat the purpose of communication which is, of course, to get the meaning across (Ludwig, 1984: 552).

Wilkins(1972)는 의사소통에서 어휘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는데 가령, I bake cookies yesterday 라는 문장을 발화 했을 때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있으나 각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원어민은 부정확한 어휘를 가진 문법적 발화보다 정확한 어휘를 가진 비문법적인 발화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어휘의 사용의 중요성을 뒷받침 해준다. Widdowson(1978)은 언어학적 지식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의사소통에서 의미가 정확한 어휘의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에 있어 어휘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정확한 의미의 어휘를 선택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Canale과 Swain(1980: 29)은 의사소통능력은 메시지를 해석하고 전달하고 특정한 맥락 안에서 상호적으로 의미를 협상할 수 있는 복합적 능력으로 간주하였다. 구체적 능력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어휘에 대한 지식과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음운론적 규칙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는 의사소통능력이다.
2.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담화 속의 문장들을 연결하여 일련의 발화문으로부터 유의적인 전체 의미를 형성하게 하는 능력이다.
3. 사회 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로 여기에서 사회적 상황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맡은 역할, 이들이 공유하

는 정보,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기능을 의미한다.

4.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언어 수행상의 변인이나 불완전한 능력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이다.

의사소통능력은 통사 형태, 음운규칙과 어휘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수행되는 문법적 능력, 상황과 의도에 맞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담화적 능력,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의 사회 언어적 능력, 마지막으로 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능력으로 구성된다. 의사소통은 단순히 언어를 아는 것 뿐 아니라 언어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휘학습도 의사소통능력의 요소처럼 어휘의 의미적, 형태적, 음운론적, 통사적 규칙을 아는 것과 함께 어휘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활용능력을 포함한다. 만약 어휘가 의사소통 상황이나 의도에 적절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은 부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의사소통능력 구성 요소와 달리 어휘 학습에 어떤 요소들이 관련되는지 살펴보자.

Laufer(1990)는 어휘 학습에 관련된 요소들은 어휘의 형태(form), 기본적인 형태소와 접사들을 포함하는 어휘의 구조, 구나 문장 속에서 단어의 통사적 유형(syntactic pattern), 단순 의미(semantic meaning), 화용적 의미(pragmatic meaning), 연어(collocation)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모국어 사용자는 어휘의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사용에도 능숙하다.

Carter와 MaCarthy(1988)은 단어를 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① 음성어와 문자어 텍스트에 단어가 나타날 가능성에 관한 지식
- ② 단어가 들어가는 틀과 그 기저 형식 및 파생어에 대한 지식
- ③ 해당언어의 다른 단어들이나 모국어 중 관련된 단어와 맺게 되는 관계에 대한 지식
- ④ 단어의 보다 유표적인 화용적 및 담화적 기능과 그 문체 수준은 물론 단어의 상대적인 핵심성의 인지
- ⑤ 단어와 연관되는 상이한 의미 및 빈번하게 연관되는 패턴 범위에 관한 지식

⑥ 필요한 경우 반복하고 적용하도록 암기되고 고정된 표현의 일부 또는 전체로서의 단어 지식

앞선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어휘지식은 어휘의 구조, 의미를 알고 언어 관계, 어휘의 맥락적 상황에서의 올바른 사용이 포함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언어에 대한 상황적 맥락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

언어는 언어들마다 다양하므로 비 원어민 화자에게는 어려운 요소이지만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Nattinger & DeCarrico, 1992). 언어는 어휘들이 모인 덩어리로 개별 단어 학습보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머릿속에 저장한 것을 바로 꺼내서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별단어의 조립과는 달리 언어는 이미 의미적으로 적절한 관계의 단어들이 모여 정확한 문법이 확립된 어휘 덩치이므로 언어 사용의 정확성이 전제된다. 이러한 언어를 단순히 학습자가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습자가 표현하고 발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언어가 이미 의미적, 문법적으로 완전한 덩치라면 맥락과 문화, 사회적인 요인은 언어 사용의 선결조건이 된다. 보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는 학습자로 하여금 맥락에 맞게 산출(output)되고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3 언어의 정의

언어를 정의하기에 앞서 숙어(idiom), 자유결합(free combination), 복합어(compound)의 개념부터 파악해 보기로 하자.

먼저, 숙어(idiom)란 결합된 단어들의 구성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결합관계로 내용적으로 의미가 특수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최인철, 1998). 숙어는 개별 단어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결합된 단어들의 의미가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pass the buck’의 각각 단어의 의미는 ‘pass’는 ‘통과하다’, ‘buck’은 ‘수사슴’이지만, 결합된 숙어의 의미는 ‘책임을 전가하다’라는 의미이다. ‘kick the bucket’은 ‘die’라는 의미로 개별단어들의 총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

가 된다. Alice(2005: 195)는 속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속어는 한 단어 이상으로 구성된다.
- 속어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의미는 투명하지 않다. 단어들의 부분의 합 보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단어들은 분리될 수 없다.
- 속어를 구성하는 단어들은 의미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각 단어에 대한 동의어로 대체된다면 관용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 속어를 구성하는 단어들은 문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속어들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수동태나, 복수형을 만들면 관용적인 의미를 잃게 된다.

다음으로 Howarth(1998)는 자유결합(free combination)을 개별 요소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구성성분은 자유롭게 대체 가능한 어휘그룹이라고 하였다. 자유결합의 전형적인 예를 들면, ‘blow a trumpet’ 이다. 이는 ‘트럼펫을 불다’ 라는 의미로 각 개별어휘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고 구성하는 어휘들 대신에 다른 어휘로도 바뀔 수 있다.

연어는 속어, 자유 결합과는 다른 개념으로 정립된다. 연어의 위치는 자유결합과 속어 사이의 중간 개념으로 여겨진다. 즉, 자유결합과 연어는 구성요소의 의미를 반영하지만 속어는 구성요소의 의미를 반영하지 않는다. 연어는 구성요소의 의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자유결합과 비슷하고 빈도수나 구성상 의미의 고착적 측면에서는 관용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연어란 어휘의 결합 관계로 한 쌍의 단어가 습관적으로 함께 나타나며 서로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때 이런 단어들의 쌍을 연어 관계로 본다(김영숙, 2004). Palmer(1933)는 연어를 둘 이상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들을 낱말의 단어로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된 단위로 파악해야 할 어군(word group)이라고 하였다. 연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ollocation is meant the habitual association of a word in a language with other particular words in sentences. (Robins, 1964: 53)
- Whenever a combination of words comes to be used again and again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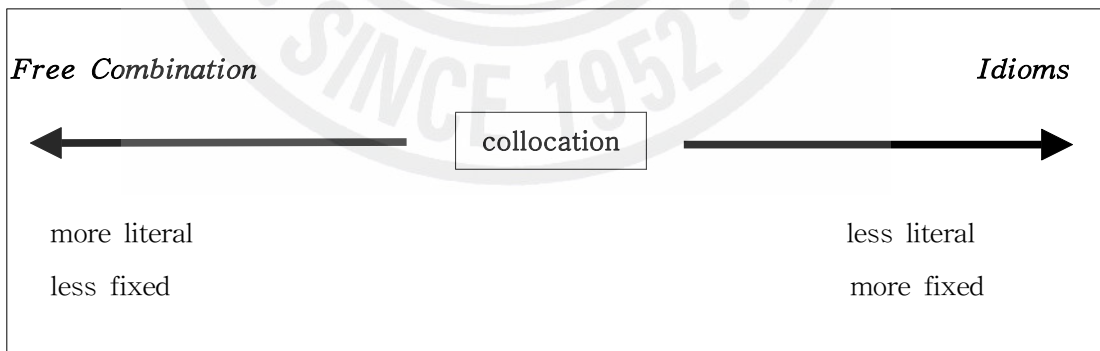
reference to a particular thing or situation, it develops a kind of connective tissue. Such habitual association of words, the characteristic company they keep, is known as collocation. (Bolinger and Sears, 1968: 5)

- When the co-occurrence of lexical items has a certain degree of mutual predictability, the sequence of these items is considered a collocation. (Cruse, 1991: 223)
- Collocations are at the lower end of idiomaticity scale being only weak realizations of the idiom principle. (Ferenando, 2000: 131)

위의 여러 학자들의 연어의 개념을 요약해보면, 연어란 두 단어 이상의 습관적 결합, 연합으로 의미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구조적으로 함께 쓰이는 경향을 보이고 의미의 예측가능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연어를 숙어, 자유결합으로 부터 구분하는 방법은 구성 요소들 간의 고정성(fixedness)의 정도와 개별 단어의 문자적 의미 전달(literalness)정도를 판단의 척도로 사용하였다(Benson, Benson & Ilson, 1986).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The Continuum of Collocations(Benson, Benson & Ilson,1986)



연어는 문자적 의미전달(literalness)과 고정성(fixedness)에서 보면 자유결합과 숙어의 중간정도에 위치한다.

2.4 연어의 분류

2.4.1 연속선상에서 분류

연속선상에서 바라보는 연어의 분류는 의미적 투명성(semantic transparency), 대체의 정도(degree of substitutability), 생산성의 정도(degree of productivity)를 포함하고 있다. 의미적 투명성은 어휘 본래의 의미의 해석이 살아날수록 투명성이 높고 연어를 구성하는 어휘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휘들이 많을수록 대체의 정도가 높다. 생산성의 정도는 어휘의 대체의 정도가 높으면 생산되는 어휘들이 많으므로 높은 생산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Carter(1988)는 제약성(restrictedness)의 정도를 기준으로 가장 제약적인 연어(most restricted collocations), 준제약적인 연어(semi-restricted collocations), 비제약적인 연어(unrestricted collocations)로 분류했다.

세 분류의 연어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비제약적인 연어는 특정 단어가 매우 넓은 범위의 어휘들과 개방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연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bright’, ‘fat’, ‘head’ 등이 있다. 둘째, 준제약적인 연어는 제한된 수의 다른 어휘와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harbour(숨기다)’는 ‘doubts’, ‘uncertainty’, ‘suspicion’ 등의 제한된 어휘와 결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up and down’, ‘cash and carry’ 처럼 한 어휘의 항목의 출현이 다른 어휘 항목에 의해 결정되어 고정되어 있는 연어는 가장 제약적인 연어이다.

Hill(2000: 63-64)은 단어들 간의 결합 개방정도를 의미하는 연어의 강도(strength)에 따라 독자적 연어, 강한 연어, 중강도 연어, 약한 연어로 구분하고 있다. 각 연어에 대한 예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Hill(2000: 63-64)의 연어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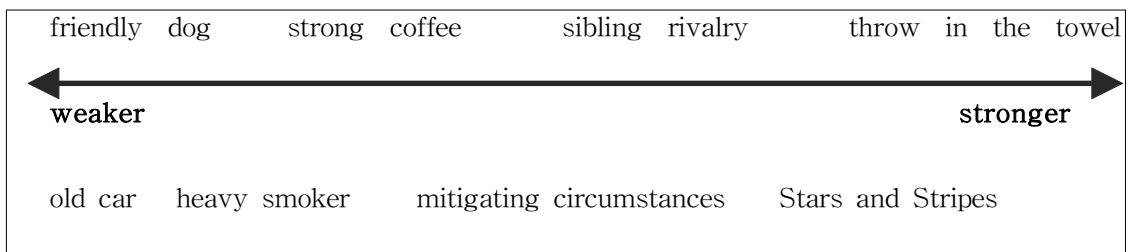
연어의강도(strength of collocation)	예
독자적 연어(unique collocation)	foot the bill, shrug your shoulder, ups and downs

강한 연어(strong collocation)	trenchant criticism, rancid butter
중강도 연어(medium-strength collocation)	hold a conversation, expensive tastes
약한 연어(weak collocation)	a tall woman, a red shirt, a large room

‘ups and downs’ 처럼 한 단어의 출현이 다른 언어 항목에 의해 거의 결정되어지는 독자적인(unique)연어, ‘trenchant criticism’, ‘rancid butter’ 와 같이 두 단어 간의 결합이 매우 밀접한 강한(strong)연어, ‘a tall woman’, ‘a red shirt’ 와 같이 ‘tall’ 이라는 형용사와 공기(co-occur)할 수 있는 단어의 선택이 의미의 상충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교적 다양하고 예측 가능하게 결합하는 약한(weak)연어, ‘hold a conversation’, ‘expensive tastes’ 와 같이 두 단어 간 결합이 제한되어 있는 ‘중강도(medium-strength)연어’로 연어를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Hill의 분류는 Carter(1988)의 분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Carter의 첫째 유형은 Hill의 분류 중 강한 결합의 연어에 해당되며, 둘째 유형은 중강도 결합의 연어, 셋째 유형은 약한 결합의 연어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Hill은 이 네 가지 중 중강도 연어가 학습해야할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말과 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Conzett(2000:74)도 연어를 강도(strength)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한 단어와 결합하는 다른 단어의 예측 가능성 정도에 따라 다음의 [표 3]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3] Conzett의 연어의 연속선 상(2000)



화살표는 연어의 결합 정도를 나타낸다. 화살표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언어의 결합은 강해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언어의 결합은 약해진다고 하였다. 즉 ‘friendly dog’ 는 언어의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어휘들로 대체될 수 있고 의미적 투명도는 높다. 반면, 연속선 상 위에서 언어적 결합이 가장 강한 우측에 있는 ‘throw in the towel(패배를 인정하다)’ 은 다른 단어들과 대체될 수 없고 의미적 투명도도 낮다.

이와 비슷하게 Cowie(1981: 223-235)와 Howarth(1998:19)는 언어를 유형을 난이도와 복잡성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난이도와 복잡성은 대체될 단어가 많을 경우 변이성이 많아져 난이도와 복잡성은 높아진다.

① Idiom

ex) bite the dust, shoot the breeze

② Invariable Collocation

ex) break a journey, from head to toe

③ Collocation with Limited Choice at One Point

ex) give/allow/permit access to (noun phrase)
have/feel/experience a need for (noun phrase)

④ Collocation with Limited Choice at Two Points

ex) as dark/black as night/coal/ink
get/have/receive a lesson/instruction/tuition

첫 번째 단계는 관용어로 고정된 언어 형태를 갖고 문자적 의미가 아닌 관용적 의미를 갖는다. 만약 다른 단어로 대체될 경우 관용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므로 관용구는 변이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잡성의 정도는 가장 적다. 두 번째 단계는 언어는 고정되어 있으면서 그 의미는 구성요소의 의미의 합으로 되어 있으므로 투명성이 높다. 첫 번째 단계와 비교하여 단일어 의미보다는 의미가 여러 어휘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 세 번째 단계는 공기할 단어 의미가 유사한 제한된 어휘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선택은 변이성과 복잡성을 증가 시킨다. 마지막 단계는 공기할 단어가 하나 대신 두 개가 필요하여 변이성과 복잡성이 가장 높다.

2.4.2 문법적 연어와 의미적 연어

Benson, Benson,과 Ilson(1986)은 연어를 문법적 연어와 어휘적 연어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문법적 연어는 동사, 명사, 형용사 다음에 어떤 특정한 통사론적 요소가 오고 특히 전치사가 따라온다. 예를 들어 형용사 ‘afraid’ 다음에 전치사 ‘of’ 나 ‘that-절’ 이 나오는 경우이다. 어휘적 연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 내용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주된 형태로는 ‘동사+명사’ , ‘형용사+명사’ , ‘명사+동사’ , ‘명사+of+명사’ , ‘부사+형용사’ , ‘동사+부사’ 등이 있다. 이러한 문법적 연어와 어휘적 연어의 예는 다음 [표 4] 에 정리되었다.

[표 4] Benson, Benson, 과 Ilson(1986)의 문법적, 어휘적 연어의 하위유형

문법적 연어 (grammatical collocation)	
collocation types	example
1. 명사 + 전치사	blockade against, apathy towards
2. to 부정사 (명사+to 부정사)	a pleasure to do something
3. 명사+ that-절	an agreement that
4. 전치사+ 명사	by accident
5. 형용사+전치사	(to) be afraid of
6. 형용사+to 부정사	(to) be ready to do something
7. 형용사+ that-절	(to) be imperative that

어휘적 연어 (semantic collocation)	
collocation types	example
1. 동사+명사/대명사/전치사구	set a record, come to an arrangement
2. 동사+명사	reject an appeal, quench one's thirst

3. 형용사+명사	strong tea, a rough estimate
4. 명사+동사	bees buzz/sting/swarm, blood circulates
5. 명사+of+명사	a pack of dogs, a school of whales
6. 부사+형용사	deeply absorbed, closely acquainted
7. 동사+부사	affect deeply, appreciate sincerely

문법적 연어는 중심 단어와 전치사 혹은 부정사나 절과 같은 문법적 구조로 된 구이다. 예를 들어 동사 ‘depend’ 는 전치사 ‘of’ 가 아니라 ‘on’ 과 연어를 이루고 ‘accuse (somebody) of’ 는 ‘accuse somebody on a crime’ 이 될 수 없다. 예처럼 다른 고정된 구의 구성요소와 서로 연어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법적 연어와 대조적으로 어휘적 연어는 전치사, 부정사, 절을 포함하지 않는다. 어휘적 연어는 내용어로 쓰이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로 구성된다. 위의 어휘적 연어 표에서 1번 연어형태와 2번 연어형태인 ‘동사+명사’ 의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번 연어형태에서는 보통 타동사로 불리는 동사와 명사가 결합하고 동사들은 창조(creation)와 활성화(activation)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번 연어형태는 대부분 근절(eradication) 혹은 무효(nullification)를 의미하는 동사와 명사가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2.4.3. Lewis(2000)의 분류

Lewis(2000: 133)는 연어가 어휘들의 결합으로 본다면 그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연어를 20가지로 분류하여 유형을 제시하였다.

- ① 형용사 + 명사 (adjective+noun): a difficult decision
- ② 동사 + 명사 (verb+noun): submit a report
- ③ 명사 + 명사 (noun+noun): radio station
- ④ 동사 + 부사 (verb+adverb): examine thoroughly
- ⑤ 부사 + 형용사 (adverb+adjective): extremely inconvenient
- ⑥ 동사 + 형용사 + 명사 (verb+adjective+noun): revise the original plan
- ⑦ 명사 + 동사 (verb+noun): the fog closed in
- ⑧ 담화표지 (discourse marker): To put it another way
- ⑨ 다단어 전치사구 (multi-word prepositional phrase): a few days
- ⑩ 구동사 (phrasal verb): turn in
- ⑪ 형용사 + 전치사(adjective+preposition): aware of
- ⑫ 복합명사 (compound noun): fire escape
- ⑬ 두 쌍의 단어 결합- 2항어(binomial): backwards and forwards
- ⑭ 세 쌍의 단어 결합- 3항어(trinomial): hook, line and sinker
- ⑮ 고정구 (fixed phrase): on the other hand
- ⑯ 불완전 고정구 (incomplete fixed phrase): A sort of...
- ⑰ 고정표현 (fixed expression): No half?
- ⑱ 반 고정표현 (semi-fixed expression): See you later/tomorrow/on Monday
- ⑲ 속담의 일부 (part of a proverb): Too many cooks...
- ⑳ 인용의 일부 (part of a quotation): To be or not to be...

Lewis의 연어는 유형 7번까지는 내용어(content words)중심의 연어 유형이, 유형 8번 이후로는 동사구 관용어 중심의 연어 유형들로 구성되어있다. 이처럼 연어들의 분류는 학자들 마다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2.5. 연어의 선행 연구

어휘 연구는 구조주의에서 어휘를 개별적으로 보고 어휘의 형식을 강조한 것

에서 부터 70년대는 의미론의 등장과 함께 어휘의 의미를 중요시 하게 되었다. 과거 어휘를 개별단어로 인식한 것과는 달리 어휘를 문치, 즉 연어로 보는 어휘 접근법과 코퍼스의 발달은 언어연구를 활발하게 하였다. 기존의 연어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어휘지식과 연어지식 상관관계, 연어 유형별에 따른 이해정도, 연어와 언어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5.1 어휘지식과 연어지식의 관계

Bahns 와 Eldaw(1993)는 어휘지식과 연어지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독일의 상위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어지식을 조사하기 위해 ‘동사+명사’ 연어를 번역과 빈칸 채우기 과업들을 제시하고 대조를 위한 일반적인 어휘 번역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어휘지식이 언어능력보다 훨씬 더 앞섰다. 이는 EFL 상황에서 개별 어휘습득보다 연어습득이 부족함을 말해준다.

박소희(2003)는 133명의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어휘적 능숙도와 연어, 어휘와 연어의 상관관계,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밝히는 실험을 하였다. 학습자들의 언어 능숙도는 공인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그룹, 중간 그룹, 하위그룹인 세 그룹으로 나뉘어 졌다. 설문에 쓰인 연어는 Benson(1986)의 분류에 따른 연어들 중 5가지 연어유형 동사+명사, 형용사+명사, 명사+동사, 부사+형용사, 부사+동사를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 대상자들은 부사+형용사 유형의 연어를 가장 어려워했으며 언어 능숙도는 연어사용능력과 관계가 있었다.

권양희(2005)는 우리나라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연어를 통한 어휘학습과 독립된 개별 어휘를 통한 어휘 학습할 경우 어느 쪽이 어휘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목적달성을 위해 실험집단에게는 연어를 통한 어휘학습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게는 전통적인 어휘교수를 행하였다. 결과는 어휘를 연어와 함께 학습한 실험집단이 개별 어휘를 사전적 정의에 의존하여 학습한 실험집단보다 어휘력 향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김낙복(2005)은 한국 고등학생 1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영어성취도 평균이 비슷한 반을 두 반씩 60명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통제군은 단어 목록을 중심

으로 하는 어휘학습을 하게하고 실험군은 언어 중심으로 하는 어휘학습을 하게 하였다. 3개월의 실험기간 후 언어 중심 어휘적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둔 지도가 풍부한 어휘지식과 어휘결합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습자가 언어의 입력(input)은 물론 수용(intake)과 출력(output)을 극대화 시키게 되고, 영어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영어를 실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skill)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김시준 (2008)은 언어 어휘지도가 학습자의 어휘 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언어중심 어휘지도가 문법, 어휘적 언어향상에 어휘의 이해를 돕고 어휘능력을 향상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그는 언어 학습은 어휘간의 결합의 예측가능성 영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2.5.2 언어 유형에 따른 이해정도

언어 유형에 따른 선행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한 언어의 분류 중 학습자들이 어떤 유형에 능숙한지를 알아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Huang(2001)은 타이완 EFL 대학생 학습자들의 언어지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타이완 영어 학습자들의 언어 관련 오류 연구에 있어서 모국어의 간섭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밝혀 냈다. 그는 Howarth(1998)의 언어 분류 방법에 따라 자유 결합(free combination), 제한적 언어(restricted collocation), 비유적 숙어(figurative idiom), 순수 숙어(pure idiom)의 네 가지 형태 언어에 관한 학습자들의 지식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타이완의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언어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었고 언어에 사용에서 모국어 간섭 현상이 많이 나타나며 순수 숙어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Howarth(1998)의 언어분류

	free/open combination	restricted collocations	figurative idioms	pure idioms
lexical composites	blow a trumpet	blow a fuse	blow your own trumpet	blow the gaff
grammatical	under the	under	under the	under the

composites preposition+noun	table	attack	microscope	weather
--------------------------------	-------	--------	------------	---------

김은정(2006)은 중학생 2학년 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문법적 언어와 어휘적 언어 지식 간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문법적 언어보다 어휘적 언어를 더 잘 이해하고 특히, 학생들은 ‘부사 + 형용사’ 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반면, ‘형용사 + 전치사’ 유형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어휘적 유형에서 오류는 주로 모국어 간섭에 의한 것이었지만 문법적 언어의 오류는 전치사와 내용어간 결합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송영주(2008)는 고등학생을 110명을 대상으로 언어지식을 측정하고 언어 유형 중 문법적 언어와 어휘적 언어의 지식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Benson 외(1997)의 분류 유형에 따른 어휘적 언어 유형 네 가지와 문법적 언어 유형 4가지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문법적 유형의 지식이 어휘적 유형의 지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법적 유형에서 ‘부사+형용사’ 유형의 언어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문법적 언어지식이 높은 이유를 입시 위주의 영어교육이 문법과 문장구조를 강조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2.5.3 언어와 언어 기능과의 관계

오세목(2002)은 언어지도가 읽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22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실행하였다. 실험집단 A에게는 전통적인 어휘 지도를 하였고 실험집단 B에게는 언어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에서는 아무런 어휘도 지도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언어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읽기이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태덕(2004)은 언어를 통해 이미 확립된 표현을 바로 사용하면 구나 문장을 만드는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언어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듣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과 언어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학급이 그렇지 않은 학급보다 영어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실험을 바탕으로 언어지식과 의사소통능력과의 궁

정적인 관계를 주장하였다.

손영희(2007)는 중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지식의 정도를 살펴보고 언어지식과 쓰기능력간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어휘지식이 높다고 언어지식이 뛰어난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어휘지식과 쓰기 능력 상관관계보다 언어지식과 쓰기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언어지식이 높으면 쓰기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복희(2007)는 고등학생 1학년 보충반 104명을 대상으로 언어 학습이 독해력의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였다. 연구를 위해 실험대상인 학생에게 3개월 동안 언어지도를 하였다. 그 후 언어지도 전과 후에 같은 설문지로 독해력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점수에 유의미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언어지식이 독해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언어와 어휘 습득 간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FL 학습자들은 언어 습득이 다양한 언어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EFL 환경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한국 학습자들의 어휘지식은 언어지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2.6 언어 학습의 의의

언어사용에서 어휘들은 다른 특정 단어들과 어울려서 쓰인다. 가령 영어에서 ‘drink’ 라는 단어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tea, coffee, milk, mineral water, juice’ 등과 같은 단어들과 쉽게 연결되어 의미전달이 용이하게 된다. 하지만 ‘engine oil, shampoo’ 등과 같은 단어들은 쉽게 연상되기가 힘들다. 동사 ‘enhance’ 의 경우에는 결합될 수 있는 단어가 소수의 명사나 형용사, 예를 들면 ‘his reputation,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등에 한정된다. 동사 ‘do’ 의 경우에는 선택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나타난다. ‘His best, the good thing’ 은 가능하나 ‘mistake’ 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어휘 간의 결합과 선택은 다양한 결합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휘사용이 다양한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어휘를 개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Rivers(1968: 209)는 이처럼 언어 단위가 고립된 상태에서 개별적 어휘위주로 학습을 탈피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They often fail to realize that meaning is expressed in groups of words and in combination of language segments, and that the meaning of an individual word is usually difficult to determine when it is separated from a context of other words and phrases(Rivers, 1968: 209).

개별어휘 학습에 반하여 배운 어휘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 어휘를 문치로 가르쳐야 한다는 어휘접근법은 언어학습의 중요성을 부각 시켰다. 어휘간의 결합방식으로 이루어진 어휘덩어리인 연어를 사용한 학습은 개별 적인 어휘학습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해 준다.

한편 최근 컴퓨터를 활용한 언어자료 (corpus)를 통한 어휘의 분석은 종래 어휘와 문법을 이분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에서 다단어구(multi-word phrase)의 개념을 제안하고 그 중요성을 부각 시켰는데 이 다단어구는 연어가 중심에 있다 (Lewis, 2000).

연어는 빈번하게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의 관계라면 다단어구는 고정된 연어의 극단적인 경우로서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연쇄이다. 이 연쇄는 의미적, 통사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룬다. 예를 들면 ‘How are you?’ 나 ‘See you later’ 와 같이 고정된 표현으로 이는 제한된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코퍼스란 한 언어의 상태(state) 혹은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언어 텍스트의 집합을 말한다(Sinclair, 1991). 코퍼스 언어자료는 실제 의사소통상에서 사용되는 실제적인 어휘자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어휘자료들은 연어, 숙어, 다단어 단위의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다. 코퍼스를 통해 많은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과 한정된 같은 의미 집합 안에서 연어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cause’ 는 ‘problem, difficulties, trouble, damage,

death, pain, disease’ 등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들과 사용되는 언어 관계를 보여준다. 반면, ‘provide’ 는 ‘insights, information, services, aid, assistance, support’ 등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들과 주로 쓰인다. 둘의 차이는 단어 ‘work’ 와 결합시켜보면 그 맥락 속에서 의미를 알 수 있다. ‘provide work’ 는 긍정적인 것, ‘cause work’ 는 부정적인 것이다. 이처럼 코퍼스의 연구는 언어학습에서 언어의 사용과 이해를 위한 맥락을 제공해 준다.

언어의 사용은 우리가 매일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에서 즉 구어나 문어 텍스트(text)에서 고정된 표현으로써 약 70%이상을 차지한다. 그만큼 언어는 언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Martin(1984)은 언어 정보는 제 2 언어학습에서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Martin과 Lewis(2000), 그리고 Hill(2000)의 연구도 언어 학습의 중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언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언어는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언어는 미리 만들어진 어휘 덩어리(prefabricated chunks of lexis)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요소들 간 상호의존적이고 문법적인 요소를 포함 하고 있다. 언어는 문법과 어휘의 중간 매개체로 문법 체계를 무의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언어의 다양한 예시를 통한 귀납적인 교수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은 개별어휘의 학습을 위한 연역적 접근에서 느꼈을 어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자연스럽게 문법요소가 포함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Lewis, 1993).

둘째, 개별어휘가 아닌 전체 어휘 문치를 이해함으로써 언어의 패턴을 쉽게 익히고 이해의 처리 속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복잡한 개념이나 의미의 표현이 정확하고 간결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major turning point’ 라는 언어 표현을 모른다면 ‘a very important moment when things changed completely’ 와 같은 문장을 구성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revised edition’ 은 ‘a new book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old one but improved and up-to-date’ 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의 언어지식은 표현을 간결하게 할 뿐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 문법 오류의 가능성도 적어질 것이다. 이처럼 언어 사용은 문법 요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복잡한 표현을 시간 제약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이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연어는 어휘의 의미사용을 실제 사용에 적합하게 한다. 종종 통사적으로 이상이 없지만 어휘사용에 있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다. 가령 ‘The heat made milk rotten’ 이라는 문장은 통사적으로는 완벽한 문장이지만 모국어 화자라면 ‘milk’ 와 ‘rotten’ 이 서로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금방 인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는 ‘rotten’ , ‘bad’ , ‘sour’ , ‘rancid’ , ‘addled’ 등이 있는데 ‘milk’ 는 이러한 형용사들 중에 오직 ‘sour’ 와 함께 쓰이고 ‘rancid’ 는 ‘bacon, butter’ 에 ‘addled’ 는 ‘egg’ 와 함께 나타난다. 연어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 어휘 사용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넷째, 연어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DeCarrico(1992)는 단어를 많이 안다고 해도 연어 능력이 없으면 유창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연어는 이미 원어민 화자들이 사용하는 고정된 표현이다. 원어민 화자들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머릿속에 저장된 구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저장된 구는 고정된 표현으로 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실제 의사소통에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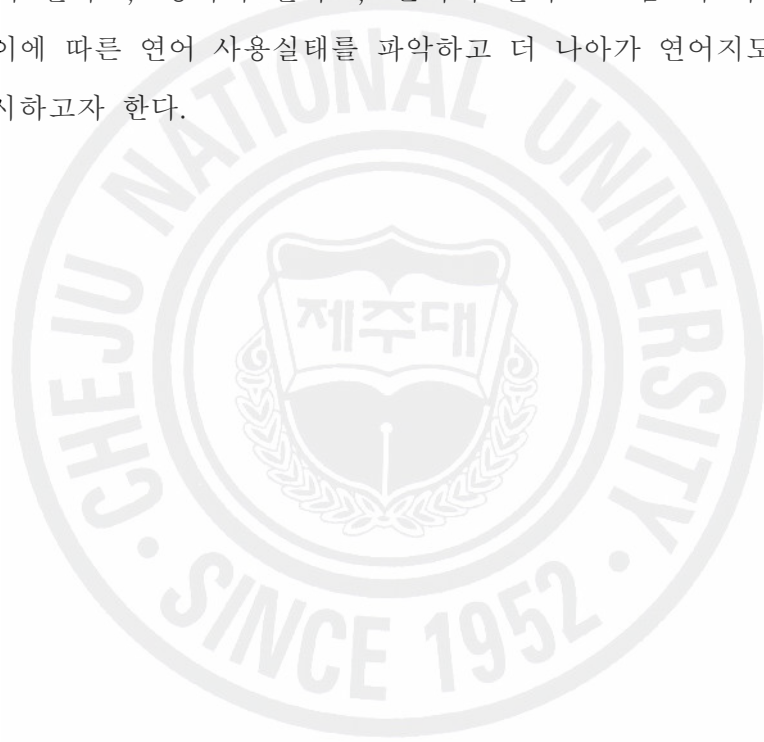
연어는 개별어휘들을 사용하여 문장을 조립하는 것과 달리 연어는 실제 원어민이 사용하는 고정된 구 표현(phrasal expression)으로 의사소통에 바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연어는 문법화된 고정된 어휘로 이를 그대로 의사소통에 사용함으로써 문법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연어는 언어 습득의 궁극적 목표인 언어의 정확성(accuracy)과 유창성(fluecy)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학습자들에 대해 연어의 이해정도를 연구할 때 사용된 어휘, 연어목록이 학습자들과 친숙하지 않은 연어들이 많았고 학습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어휘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았다. 현재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는 실제 의사소통에서 사용되어지는 문장이나 어휘는 단지 표층적인 의미로서 이해하여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화되어지는 상황(context)이나 문화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연어의 유형은 대부분 어휘적, 문법적 역할에 따라 연어를 분류되어 문화적, 화용적인 관계의 연어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연어를 좀 더 확장된 의미로 포함한

보다 확대적 시각이 필요하다.

설문 유형 또한 대부분 연어지식 측정은 선택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연어 표현 사용과 관련된 기저의 능력을 측정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학습자의 수용적 능력을 알 수 있는 서술형 설문을 통한 연어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어 이해 정도와 활용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어의 개념에 문화적인 요인이 함축된 표현을 본 연구에 포함하여 화용적 측면에서 연어 사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연하면, 연어의 유형을 ‘어휘적 연어’, ‘통사적 연어’, ‘문화적 연어’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분류하며 이에 따른 연어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연어지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학습자들의 연어이해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연어의 이해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연어지도의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대상인 학습자들의 영어 학업 성취도와 연어 이해정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동일한 연어 목록을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나누어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선택형 설문은 연어 사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수용적 지식 측정을 목표로 하였다. 서술형 문항을 통해 말하기, 쓰기에 해당하는 표현적 지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현적 지식을 지향하는 의사소통중심에서 연어 사용 실태와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형용사+명사’ 연어, ‘통사적’ 연어, ‘문화적’ 연어 유형들의 이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연어와 앞선 두 유형의 연어간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직 영어교사에게 연어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지도방법에 대한 현황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연어 이해 및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어 지도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도 살펴보고자 한다.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 중학교 3학년 2개 반 79명,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2개 반 82명 총 1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학교 두 개 반은 영어 성적평균이 다른 반 보다 높은 반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설문 문제를 더 잘 이해하여 응답률을 높이고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인문계 두 반을 선정하여 설문을 하였다. 중학교 학습자,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로 함으로써 어휘의 발달에 따른 언어 습득 및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3 연구 방법 및 내용

영어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둔 본 연구는 영어 학습자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 및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제작된 설문 유형은 선택형과 서술형 두 가지 형으로 구성되었다. 선택형은 어휘적, 통사적, 그리고 문화적 언어 형태로 이루어졌다. 어휘적 언어는 의미적 언어 유형에 해당하는 ‘형용사+명사’ 유형의 언어이고 통사적 언어는 동사선택과 문법적 구조의 요소로 구성된 언어이다. 문화적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의 문화적, 맥락적 차이에서 오는 언어로 구성되었다. 각 언어 유형들은 문장 안에서 제시되었다. 어휘적 언어의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 4지 선다형 문항이 제작되었으며, 통사, 문화 관련 언어에서는 두 개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문이 구성되었다. 서술형 문항의 경우 언어를 구성하는 어휘 중 하나를 써 넣도록 하였다. 유형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형용사+명사’ 언어 15문항, ‘통사적’ 언어 15문항, ‘문화적’ 언어 20문항으로 총 50 문항이다. 단, 서술형 설문지가 제시된 중학생 반에는 문화적 언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학교 학습자들의 문화적 어휘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설문문항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어휘적 연결에 따른 언어’는 Lewis(2000)가 제시한 어휘적 언어 유형 가운데 ‘형용사+명사’의 형태를 선택하였다. ‘형용사+명사’ 형태는 간단하고 습득하기 쉽지만 한편으로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많아 학습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사적’ 언어는 한국어에는 없는 구조적인 문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동사는 한국어에서 하나의 의미로 통합된 것들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언어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그 의미나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장들을 가지고 문항을 만들었다.

[표 6] 사용된 유형별 언어 목록

형용사+명사 언어	통사적 언어	문화적 언어
strong coffee	Is this seat taken?	Do you want coffee or black tea?
tall building	May I use your telephone in your office?	The price is high
high mountain	How did you do on the exam?	He dumped his girl friend.
heavy smoker	Would you do my favor?	Help your self.
dark eyes	How large is Seoul's population?	Get real.
large mouth	The economic situation is improving	How can I get rid of my stress?
narrow face	My mom always tells me to clean my room.	You have good taste.
low voice	I had my hair cut.	His mouth is rough.
sour milk	We left the house at seven.	You read my mind.
heavy rain	I can't start my car; the battery is dead.	This tea is on the house.
thick hair	I am going to listen to music for fun.	My uncle lives next door.
high speed	He filled a bottle with water.	Good bye
broad shoulder	If it rains, I will stay home.	My ears are burning.
flat feet	What do you think about it?	I am exhausted.
weak eyesight	I want to be a great professor.	You're very picky about food.
		I'm pressed for time.
		He doesn't know about the real world.
		I don't feel well.
		That's a lame joke.
		May I help you?

‘통사적’ 언어 목록에 있는 언어의 한 예로는 ‘My mom always (speaks/tells) me to clean my room’ 이다. 문장에서 제시된 동사들의 의미는 한국어로 번역 했을 때 ‘말하다’로 같지만 그 문장 내에서 ‘to 부정사’ 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는 ‘tells’ 이다. 언어 관계에 있어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한국어 화자에게 모국어 번역으로 인해 오류를 범하기 쉬운 통사적 연결에 따른 대표적인 언어의 예이다. ‘문화적’ 언어 상에 있는 언어의 예로 음식의 선호도에 까다로운 상대방에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You are picky about food.’ 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쓰는 표현인 ‘입이 짧다’ 를 그대로 번역하여 ‘Your mouth is short’ 라고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언어가 사용되는 담화의 상황과 한국어 간섭(interference)이 없게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이런 문화, 맥락적 언어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3.4 연구 문제 및 가설

기존연구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학습자 중 각각 하나의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언어지식의 이해정도와 학습 정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비교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학습의 정도와 언어의 습득과 이해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 · 고등학생 학습자들과 그들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습자들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실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별, 수준별 언어 이해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세부적이고 효과적인 언어지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설문방식이 주로 선택형이어서 학습자들의 언어이해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지만 본 연구는 서술형 문항을 통해 학습자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사용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사회, 화용적인 지식의 중요함에 따라 이들의 요소가 포함된 문화적 언어 이해정도를 연구하였다.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실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첫째, 중 · 고등학생 학습자의 언어 사용과 이해정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에서 언어를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아울러 이들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언어학습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중 고등학생 학습자 간 언어 습득 및 사용의 차이를 보이는가? 중학생 학습자에 비해 고등학생 학습자는 영어학습량이 더 많이 누적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고등학생 학습자의 언어습득과 사용이 중학생 학습자에 비해 높은지 알아볼 수 있다.

셋째, 중학생 학습자 수준별 집단 간 언어 능력의 차이와 고등학생 학습자 수준별 집단 간 언어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가? 설문 대상인 학습자들은 그들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렇다면 상,중,하의 언어 능력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면 각 집단별로 적절한 언어 지도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어진다.

넷째, 각 언어 유형 별 오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기존의 언어 유형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맥락적, 화용적 언어를 첨가하여 ‘형용사+명사’ 언어, ‘통사적’ 언어, ‘문화적’ 언어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들 중 학습자의 취약한 유형을 알아봄으로 써 문제점과 지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섯째, 중학생 학습자 수준별 집단 간의 언어 유형별 이해정도의 차이와 고등학생 학습자 수준별 집단 간의 언어 유형별 이해정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앞서 중 · 고등학생 집단에서 영어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습자를 상,중,하로 분류하였다. 각 학습자들이 ‘형용사+명사’ 언어, ‘통사적’ 언어, ‘문화적’ 언어의 이해 정도를 비교하여 각 집단에서 취약한 언어 유형들을 살펴볼 수 있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장은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은 다음 사항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첫째, 언어 이해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중학생 학습자와 고등학생 학습자의 오답율을 살펴보았다. 둘째,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와 언어 이해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형용사+명사’ 연어, ‘통사적’ 연어, 그리고 ‘문화적’ 연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넷째, 문항별 오류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전반적 연어 사용에 대한 이해정도를 살펴 보았다. 분석을 바탕으로 연어학습과 지도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4.1 연어 이해 정도

우선 중학생 학습자의 연어 이해 정도를 살펴보았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률을 중심으로 선택형 문제에 대한 분석은 [표 7] 에, 그리고 서술형 문제 분석은 [표 8] 에 정리되었다.

[표 7] 선택형 질문에 대한 중학생 반응 및 응답률

점수	학생 수	학생 수의 백분율(%)
0~10	0	0
11~20	18	45
21~30	20	50
31~40	2	5
41~50	0	0
총(합계)	40	100

[표 8] 서술형 질문에 대한 중학생 반응 및 응답률

점수	학생 수	학생 수의 백분율(%)
----	------	--------------

0~10	29	76
11~20	9	24
21~30	0	0
31~40	0	0
41~50	0	0
총(합계)	38	100

[표 7] 은 선택형 질문에 올바르게 답한 학습자들의 응답률을 나타낸 것이다. 올바른 응답이 11-20문항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18명, 21-30개 문항을 응답한 학습자들은 20명, 그리고 31-40개 문항을 응답한 학습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21-30개의 문항을 맞은 학습자 수의 비율이 전체 학습자 수의 50%에 해당되었다. 주목할 점은 10점 이하 혹은 41점 이상을 맞춘 학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이 중간층인 21-30개 문항 정도에 모여 있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연어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8] 은 서술형에 답한 학습자들 응답률을 나타낸 것이다. 총 38명의 학생 중 0-10개 문항에 응답한 학습자는 29명, 11- 20개를 응답한 학습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21개 이상의 문항을 응답한 학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학습자의 76%에 해당하는 29명의 학습자들이 0-10개의 점수대에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 24%에 해당하는 9명은 11-20개 점수대에 분포되고 있다. 서술형이 제시되었던 모든 학습자가 총 50문항 중 20개 이하의 정답을 응답한 것은 선택형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낮은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연어 이해 보다 연어를 표현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연어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계속해서 동일한 설문내용을 고등학교 2개 반에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자.

[표 9] 선택형 질문에 대한 고등학생 반응 및 응답률

점수	학생 수	학생 수의 백분율(%)
0~10	0	0
11~20	0	0
21~30	23	56

31~40	15	37
41~50	3	7
총 (합계)	41	100

[표 10] 서술형 질문에 대한 고등학생 반응 및 응답률

점수	학생 수	학생 수의 백분율(%)
0~10	17	41
11~20	22	54
21~30	2	5
31~40	0	0
41~50	0	0
총(합계)	41	100

[표 9] 은 선택형 질문에 대한 고등학생 학습자의 반응의 경우 20개 이하의 문항을 맞은 학습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가장 많은 23명의 학습자기 정답률 50%정도에 해당하는 21-30점대에 분포되어 있다. 15명의 학습자들이 31-40개를 맞춘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명의 학습자들은 41-50개의 점수를 획득하였다.

[표 10] 는 서술형 질문에 대한 고등학생 학습자의 반응으로 중학생 학습자들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생 학습자들도 수용적 지식에 해당하는 선택형보다 생산적 지식에 해당하는 서술형에서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1명 중 41%에 해당하는 17명의 학습자들이 10개 이하의 문항, 54%에 해당하는 22명은 11-20개에 올바른 반응을 하였다. 최고점을 맞은 2명의 학습자들은 50%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중학생 학습자와 고등학생 학습자의 언어이해 정도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언어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선택형 문항에 제시된 개별 어휘 들은 중 ·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의 결합인 언어의 이해는 문항 평균이 50% 정도 밖에 못 미쳤다. 이는 언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학습 정도에 따른 언어의 이해도가 다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습자 두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고등학생 학습자가 선택형과, 서술형 모두에서 언어의 이해도가 높았다. 셋째, 중 · 고등학생 학습자 모두 선택형 보다 서술형

에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선택형은 연어의 이해를 의미하고 서술형은 표현을 의미한다. 이해는 학습자들이 어휘를 이해하고 기억의 저장에 도움이 되는 전략들을 의존하는데 반해 표현은 학습자들이 저장된 어휘를 작동케 하여 이를 기억에서 산출하여 맥락에 맞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에 의존하는 것이다. 즉 표현이 이해보다 능동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자들은 연어를 이해하는 수동적인 지식보다 연어를 표현하여 사용하는 능동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2 유형별 오류 양상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명사’ 연어, ‘통사적’ 연어, ‘문화적’ 연어로 나누어 오류의 양상을 조사하고 있다. 각 유형별 학습자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중심으로 연어의 이해정도를 살펴보자.

선택형을 중심으로 연어 유형의 오류 양상은 [표 11] 에, 서술형은 [표 12] 에 정리되었다.

[표 11] 연어 유형별 오류 양상 : 선택형

연어 유형	평균점수	평균점수에 대한 백분율(%)
형용사+명사 연어(어휘적 연어)	3.1(15)	23.8
통사적 연어	7.3(15)	61.5
문화적 연어	8.9(20)	35.3

[표 12] 연어 유형별 오류 양상 : 서술형

연어 유형	평균점수	평균점수에 대한 백분율(%)
형용사+명사 연어(어휘적 연어)	1.6(15)	10.7
통사적 연어	4.8(15)	32.1

[표 11] 은 선택형에서 나타난 연어 유형별 오류 양상이다. 15개의 ‘형용사+명사’ 유형에서 학습자들은 3.1의 평균 점수를 획득하였다. 20개의 ‘문화적’ 연어 유형에서는 평균 8.9점, 15 개의 ‘통사적’ 연어는 7.3점으로 나타났다.

서술형에서는 ‘형용사+명사’ 연어와 ‘통사적’ 연어로만 구성된 문제만 제시하였다. 어휘학습량이 부족한 중학생 학습자들이 문화적 연어를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어 설문문항에서 제외 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형용사+명사’ 어휘적 연어는 평균 1.6점, ‘통사적’ 연어는 4.8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선택형 보다 서술형을 훨씬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류를 통해 살펴본 연어의 이해 양상은 ‘통사적’ 연어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중학생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이 문법, 구조 학습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형용사+명사’ 연어의 이해 정도가 낮은 학습자들이 어휘들 간 의미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계속해서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보인 유형별 오류에 대해 살펴보자.

[표 13] 연어 유형별 오류 양상 : 선택형

연어 유형	평균점수	평균점수에 대한 백분율(%)
형용사+명사 연어(어휘적 연어)	5.9(15)	42
통사적 연어	11.4(15)	76.5
문화적 연어	13.2(20)	66

[표 14] 연어 유형별 오류 양상 : 서술형

연어 유형	평균점수	평균점수에 대한 백분율(%)
형용사+명사 연어(어휘적 연어)	2(15)	13
통사적 연어	5.7(15)	37
문화적 연어	3.4(20)	16

[표 13] 은 고등학생 학습자가 응답한 선택형 연어 유형별 오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연어의 이해가 높은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통사적’ 연어, ‘문화

적’ 연어, ‘형용사+명사’ 연어 순이다. ‘통사적’ 연어는 총 15점 중 평균 11.4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문화적’ 연어는 총 20점 중 13.2, ‘형용사+명사’ 연어는 15점 중에서 5.9점으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14] 의 서술형의 결과를 보면 선택형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평균 5.7로 ‘통사적’ 연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평균 3.4점인 ‘문화적’ 연어로 나타났다. 평균 2점인 ‘형용사+명사’ 연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1] 과 [표 14] 의 비교를 통해 유형별 오류양상을 살펴보자. 중학생 학습자에 비해 고등학생 학습자는 ‘형용사 +명사’ 연어, ‘통사적’ 연어 유형의 평균점수가 두 배 정도 높다. 이러한 비교는 교육단계가 증가할수록 연어에 대한 이해정도가 나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단, ‘문화적’ 연어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과 달리 중, 고등학생 학습자의 평균 점수 차이가 두 배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학습자일수록 연어 지식이 높다. 이는 어휘지식이 높은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연어지식도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연어지식과 어휘지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고등학생 학습자가 중학생 학습자보다 ‘문화적’ 연어 이해도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을 볼 때 중학생 학습자에게 문화적인 연어이해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수준별 연어 이해정도

연어 이해정도에 있어서 학습자의 수준별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확인했다. 중학생 학습자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내신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90점 이상), 중(60~89점), 하(59점 이하)로 나누어서 각 집단 별 평균점수를 측정해보았다. 상위 점수대를 80점 이상으로 균등하게 배열하지 못한 이유로 80점대 이상의 학습자 수가 상위로 편입될 경우 상위층이 전체 학습자 수의 40%정도가 되므로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점수대를 나누었다.

[표 15] 중학생 수준별 집단에 따른 선택형 평균점수

학교 영어성적	학생 수	평균점수	평균점수에 대한 백분율(%)
상(90점 이상)	7	25.7(50)	51.4
중(60~89점)	23	20.4(50)	40.8
하(59점 이하)	10	13.2(50)	26.4
총(합계)	40	-	-

[표 16] 중학생 수준별 집단에 따른 서술형 평균점수

학교 영어성적	학생 수	평균점수	평균점수에 대한 백분율(%)
상(90점 이상)	17	9.9(50)	33.0
중(60~89점)	16	4.4(50)	14.6
하(59점 이하)	6	1.8(50)	6.0
총(합계)	38	-	-

[표 15] 는 중학생 학습자의 수준별 집단에 따른 선택형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상위 학습자는 40명 중 7명이다. 이들은 총 50문항 중 평균 25.7 문항에 적절한 반응을 보였고 중간 학습자는 23명으로 20.4문항, 마지막으로 하위 학습자 10명은 평균 13.2문항을 응답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상위학습자가 중간 학습자에 비해 연어지식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간 학습자의 연어지식이 하위학습자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 수준별 집단에 따른 서술형 평균점수 결과는 [표 16] 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위학습자17명의 학생이 총 50문항 중 9.9문항을 응답하였고, 중간 학습자 16명은 4.4문항, 하위 학습자 6명은 1.8문항을 응답하였다. 이는 상위 학습자로 갈수록 연어의 이해의 정도가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택형과 서술형문항의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상위 학습자라도 서술형에서 묻는 연어를 어려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결과는 상위 학습자로 갈수록 언어 이해는 높지만 상위 학습자라도 선택형과 서술형에서 평균 점수의 차가 현저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언어를 이해는 하지만 의사소통을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언어의 생산적 측면, 즉 연

어를 사용하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학습자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17] 고등학생 수준별 집단에 따른 선택형 평균점수

학교 영어성적	학생 수	평균점수	평균점수에 대한백분율 (%)
상(90점 이상)	10	35.6(50)	35.6
중(60~89점)	25	29.8(50)	29.8
하(59점 이하)	6	25(50)	25
총(합계)	41	-	-

[표 18] 고등학생 수준별 집단에 따른 서술형 평균점수

학교 영어성적	학생 수	평균점수	평균점수에 대한백분율 (%)
상(90점 이상)	9	13.3(50)	26.6
중(60~89점)	22	13.3(50)	26.6
하(59점 이하)	10	4.1(50)	8.2
총(합계)	41	-	-

다음의 [표 17] 과 [표 18] 은 고등학생의 수준별 집단에 따른 선택형, 서술형 언어 이해에 대한 평균 응답률이다. 고등학생 학습자의 경우에는 영어성적을 외국어영역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중학생 학습자의 점수대와 같이 90점 이상을 상위 학습자, 60-89점을 중간 학습자, 59점 이하를 하위 학습자로 나누었다.

먼저 선택형 [표 17] 을 보면 상위 학습자 10명 학습자의 평균점수는 35.6으로 상대적으로 집단 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중간 학습자 25명은 29.8점이고 하위 학습자 6명은 평균점수가 25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술형 결과를 보여주는 [표 18] 에서 상위 학습자는 41명 중 9명으로 총 50문항 중 13.3 문항을 획득하였고 중간 학습자는 22명으로 13.3문항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위 학습자 10명은 평균 4.1문항을 획득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상위 학습자가 중간 학습자에 비해 연어지식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 학습자의 연어지식이 하위 학습자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간 학습자의

평균점수와 하위 학습자의 평균점수의 차이가 크다.

위의 결과를 통해 모든 학습자에서 언어 이해 정도가 낮고 특히 하위 학습자들의 언어의 이해가 다른 학습자들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각 학습자마다 적절한 언어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4.4 학습자 수준별에 따른 언어 유형별 이해 정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따라 언어의 이해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학습자수준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자. [표 19] 와 [표 20] 은 중학생 상, 중, 하 학습자 수준별에 따른 유형별 언어 이해정도 이다.

[표 19] 중학생 수준별에 따른 언어의 유형별 이해 정도: 선택형

언어 유형	상	중	하
형용사+명사 언어(어휘적 언어)	49.3%	20.2%	33.0%
통사적 언어	67.3%	60.0%	58.0%
문화적 언어	43.0%	21.9%	17.8%

[표 20] 중학생 수준별에 따른 언어의 유형별 이해 정도: 서술형

언어 유형	상	중	하
형용사+명사 언어(어휘적 언어)	16.5%	8.3%	2.2%
통사적 언어	47.8%	23.7%	9.0%

[표 19] 는 선택형을 푼 중학생의 집단 간의 언어유형별 이해정도이다. [표 19] 에서 보듯이 ‘형용사+명사’ 언어에서는 상위 학습자의 총 학생 수의 획득점수의 총합이 49.3%, 중간 학습자는 20.2%, 하위 학습자는 33%로 나타났다. 상위 학습자의 이해 정도는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하위 학습자이 중간학습자보다 ‘형용사+명사’ 언어에서 언어의 이해정도가 높은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하위학습자가 중간학습자 보다 언어 이해가 높다는 것을 증명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문항의 서술형에서는 중간학습자가 하위학습자보다 이해능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위학습자들이 선택형에서는 모르는 것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우연히 정답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사적’ 언어에서는 상위 학습자 언어의 이해 정도가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뒤로 60%의 중간 학습자, 58%의 하위 학습자가 따르고 있다. 그러나 각 수준별 차이는 ‘형용사+명사’ 언어 보다 덜 하는 것으로 보아 중, 하위 학습자들도 ‘통사적’ 언어 이해정도가 다른 유형들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언어는 상위 학습자가 43%, 중간 학습자 21.9%, 하위 학습자 17.8%로 나타났다. 각 수준별 학습자의 ‘문화적’ 언어 이해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언어 유형별 이해정도는 각 수준별 학습자들에게서 ‘통사적’ 언어의 이해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적’ 언어는 상, 하위 학습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형용사+명사’ 언어의 이해는 중간 학습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준별 이해정도는 상위 학습자가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았고 중간 학습자는 ‘형용사+명사’ 언어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하위 학습자보다 높음을 말해준다.

[표 20] 는 서술형에 대한 결과이다. ‘형용사+명사’ 언어가 상, 중, 하위 학습자 모두 ‘통사적’ 언어보다 이해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형용사+명사’ 언어에서 상위 학습자는 16.8%로 중, 하위 학습자 보다 언어 이해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사적’ 언어에서도 76%로 중, 하위 학습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의 수준별 집단에 따른 언어 이해 정도의 결과를 통해 상위 학습자일 수록 모든 언어 유형의 이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 하위 학습자들이 언어의 개념을 알고 이에 맞는 학습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영어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유형별로는 다른 언어 유형들보다 모든 집단에서 ‘통사적’ 언어 이해가 높는데 언어의 형태와 구조 중심으로 한 언어 학습, 지도 중심에 영향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어휘적, 문화적 언어의 이해를 통해 의미론적, 맥락, 문화적인 언어에 대

한 지도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제 유형에서는 모든 학습자에서 서술형 연어를 잘 표현하지 못했다. 표현을 하였더라도 아는 개별 단어들을 임의적으로 결합시켰는데 결합은 학생들이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오류들은 다음 장의 문항별 오류 양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표 21] 고등학생 수준별에 따른 연어의 유형별 이해 정도: 선택형

연어 유형	상	중	하
형용사+명사 연어(어휘적 연어)	57.0% ²⁾	36.0%	44.0%
통사적 연어	82.6%	76.8%	65.6%
문화적 연어	77.0%	65.6%	50.0%

[표 22] 고등학생 수준별에 따른 연어의 유형별 이해 정도: 서술형

연어 유형	상	중	하
형용사+명사 연어(어휘적 연어)	17%	15%	5%
통사적 연어	45%	45%	15%
문화적 연어	20%	20%	6%

[표 21] 과 [표 22] 는 고등학생 수준별에 따른 연어의 유형별 이해 정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표 21] 선택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용사+명사’ 연어 유형에서는 상위 학습자 57%, 중간 학습자 36.0%, 하위 학습자 44.0%로 나타나고 있다. 앞의 중학생들의 결과와 같이 중간 학습자가 하위 학습자보다 이 유형의 이해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중학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술형에서는 중간학습자가 하위학습자 보다 ‘형용사+명사’ 유형에서 훨씬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하위학습자가 선택형에서 임의적인 선택이 정답으로의 결과를 나타낸 것에 기인한 것이다. ‘통사적’ 연어에서는 상위 학습자 82.6%, 중간 학습자 76.8%, 하위 학습자 65.6%로 상위 학습자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

2) 위의 각 연어 유형에 따른 상·중·하의 백분율은 상위 학생 수 획득점수의 총합/학생 수× 총 점수로 구한 값을 나타낸다.

문화적' 연어는 상위 학습자 77.0%, 중간 학습자 65.6%, 하위 학습자 50%이다. 상위 학습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연어 이해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연어 유형별로는 '문화적' 연어의 이해 정도가 낮았던 중학생 학습자와 달리 고등학생 학습자들은 모든 학습자에서 '형용사+명사' 연어의 이해가 가장 낮았다.

서술형 연어의 유형별 이해 정도는 [표 22]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위 학습자의 '형용사+명사' 연어 유형에서 점수 획득의 총합의 17%로 나타났고 중간 학습자는 15% 하위 학습자는 5%의 결과를 볼 수 있다. '통사적' 연어는 상위 학습자가 45%, 중간 학습자 45%, 하위 학습자 15%의 높은 순으로 집단 별 연어 이해의 정도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적' 연어는 상, 중, 하 각각 20%, 20%, 6%로 나타났다. 서술형 유형에서 각 집단별 연어 유형별 이해 정도는 선택형의 것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하위 학습자의 경우는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선택형의 결과와 같이 모든 학습자에서 '통사적' 연어, '문화적' 연어, '형용사+명사' 연어 순서로 연어 이해도가 높았다.

종합하면 상위 학습자일수록 모든 연어 유형에서 연어의 이해가 높았다. 이는 하위 학습자로 갈수록 학습자들이 연어의 정확한 사용 용례를 모르는 것을 말해 준다. 연어 유형별로는 중학생 학습자의 경우 거의 모든 학습자에서 '문화적' 연어 이해가 낮았다. 반면, 고등학생 학습자의 경우 모든 학습자에서 '형용사+명사' 연어가 가장 낮았다. 이는 고등학생 학습자의 어휘 지식 양이 많아지면서 형용사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어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오류가 더 많아진 것이다. 고등학생 학습자의 '문화적' 연어 이해가 높게 나타났을 지라고 서술형에서 현저히 낮은 이해를 보여주는 것은 연어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연어의 생산적 지식 향상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4.5 문항별 연어 이해 정도

먼저 총 연어 문항들 가운데서 중,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빈번히 실수를 범하는 문항과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을 비교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3]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인 문항들

연어유형	문 항
어휘적연결(형용사+명사)	1. If I have (strong) coffee, I cannot concentrate on a test. 나는 진한 커피를 마시면 시험에 집중할 수 없다.
어휘적연결(형용사+명사)	2. There are many (tall) buildings near my school. 내 학교 주변에는 높은 빌딩이 많이 있다.
어휘적연결(형용사+명사)	6. Adam has a very (large) mouth. He can eat three bananas at once. Adam의 입은 아주 크다. 그는 세 개의 바나나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다.
어휘적연결(형용사+명사)	7. Sue has a (narrow) face. Sue의 얼굴은 길다.
어휘적연결(형용사+명사)	8. My grandmother told the story in a (low) voice. 내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휘적연결(형용사+명사)	9 My son bought (sour) milk in the market. He didn't check the expiration date. 내 아들은 상점에서 상한 우유를 샀다. 그는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
어휘적연결(형용사+명사)	13. The shirts are too big for him, because he has a (broad) shoulder. 그는 어깨가 넓어서 셔츠가 너무 꼭 낀다.
통사적연결	1. Is this seat (taken)? 이 자리 비어있어요?
통사적연결	10. I can't (start) my car. The battery is dead. 배터리가 다 되어서 차 시동을 걸 수 없어.
통사적연결	13. (If it rains), I will stay home. 비가 오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문화적 연결	1. Do you want coffee or (black) tea? 커피나 홍차 드실래요?
문화적 연결	7.(You have good taste.) 너 참 센스 있다.
문화적 연결	10. This tea is (on the house.) 이 차는 서비스입니다.
문화적 연결	15. (You are very picky about food.) (음식을 앞에 두고) 너는 입이 너무 좁아.

문화적 연결	20. (May I help you?) (병원 접수대에서 직원이) 어떻게 오셨어요?
--------	---

[표 24]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문항들

언어 유형	문 항
어휘적연결(형용사+명사)	3. He prefers to climb (high) mountains. 그는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을 선호한다.
어휘적연결(형용사+명사)	10. We couldn't go on a picnic because of (heavy) rain. 심한 비 때문에 우리는 소풍을 가지 못했다.
어휘적연결(형용사+명사)	14. He's got an inferiority complex about his (flat) feet. 그는 평발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통사적연결	4. Would you (do) my favor?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어요?
통사적연결	9. We (left) the house at seven. 우리는 7시에 집을 떠났다.
통사적연결	11. I am going to (listen)to music for fun. 나는 재미로 음악을 들을 거야
통사적연결	15. I (want to be) a great professor. 나는 위대한 교수가 되기를 원해.
문화적 연결	4.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문화적 연결	11. My uncle lives (next door). 내 삼촌은 옆집에 살아.
문화적 연결	12. (Good bye). 잘가
문화적 연결	14. (I am exhausted). (오늘 일하느라) 힘이 다 빠졌어.

오류를 많이 범한 문항과 응답률을 많이 보인 문항의 결과를 통해 오답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형용사+ 명사’의 어휘적 연결에서는 학습자들이 친숙하고 많이 사용하는 표현과 일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예를 들어 ‘high mountain’, ‘heavy rain’은 교과서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flat feet’의 경우에도 여학생들이 많이 신는 편평한 모양의 구두인 ‘플랫 슈즈’의 친숙한 용어로

인해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이다. 반면, 오류를 많이 범한 문항에서 ‘strong coffee’ 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마시지 않는 음료이므로 그들에게 친숙하지 않아 모국어로 대응되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들 ‘deep, dark, thick’ 을 선택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나 다른 오류를 범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형용사인 big, long은 각각 mouth, face의 연어 관계에서는 ‘big mouth’, ‘long face’ 라고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big’ 과 ‘long’을 개별적인 의미로만 파악하여 ‘mouth’ 와 ‘face’ 의 명사와 결합되었을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데 기인한 것이다. 즉 학습자들의 어휘의 결합인 연어의 이해가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통사적’ 연결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통사적 구조 ‘want to be~’ ‘listen to~’, ‘leave + 장소’ 의 구조가 포함된 문항에서 많은 응답률을 보여준다. 즉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고 교과서나 영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빈도수가 많은 통사적 구조일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응답률이 높았던 문항인 ‘Would you do me a favor?’ 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통사적 구조를 알아서 선택하였기 보다는 관용어처럼 고정된 표현으로써 이미 단어들이 완벽이 조합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한 표현이다. 또한 이 표현은 실제 교과서나 학습자들이 보는 영어 교재에서 담화 내에서 많이 접해본 표현이므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도 정확히 아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오류를 많이 범한 문항을 보면 통사적 구조를 알아도 어휘들이 연결되어진 완벽한 표현으로 습득하지 않았을 때 모국어의 영향에 따라 단어들을 배열하고 조립한 데서 오류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It rains,~’ 라는 표현에서 학습자들은 ‘If+ 주어+동사 ~’ 의 구조를 알고 있어서 선택형에서는 어느 정도 응답을 했지만 서술형에서는 ‘If rain comes,~’ 라는 오답을 보였다. 이는 연어를 직접 사용할 때 통사 구조만 아는 것보다는 단어들이 이미 조합된 덩어리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말해준다. 즉 자신들이 아는 임의의 개별단어들을 통사 구조 속에 넣어서 발생하는 의미적, 언어적 오류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이 ‘Would you do me a favor?’ 에서처럼 통사적 구조 안에서 단어들이 이미 조합된 덩어리인 완전한 표현, 관용적인 표현으로 익힌다면 오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통사적’ 연결에서는 학습자들이 비교적 친숙한 통사적 구조에 응답률이 높았지만 관용어구처럼 표현이 완

전한 문장, 즉 그 조합된 덩어리 안에 문법적 구조가 포함되어있는 문장으로 습득했을 때 완벽한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통사적인 구조나 틀만 학습하였을 때는 자신들의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어휘들을 배열하여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연어에서도 ‘통사적’ 연어와 마찬가지로 친숙하고 단어들이 이미 배열된 완전한 표현의 문장일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예를 들면 ‘Help yourself.’, ‘I am exhausted.’ 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하지만 오답을 많이 보인 문화적 연결들은 대부분 모국어를 영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양상을 많이 나타냈다. 예를 들면 ‘센스 있다’ 와 ‘서비스’ 의 경우 한국에서 콩글리쉬화된 영어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 표현이 원래 영어 표현이라고 생각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습자들이 사용되는 문화적인 맥락에서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표 23] 에서 중 · 고등학생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오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번 문항] ‘If I have (strong) coffee, I cannot concentrate on a test.

어휘적 연결 1번 문항은 가장 많은 학습자들이 어려워했던 문항이었는데 선택형 문항의 보기 중 ‘dark, ‘deep, ‘thick’ 순서로 학습자들이 오답을 했다. 이는 ‘strong’ 이란 ‘힘이 강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개별적인 단어로 학습되어서 커피와 어울리지 않는 형용사로 학습자들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학습자들이 커피라는 음료와 친숙하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표현들이 낯설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오답 중 ‘dark’ 를 선택한 이유로 학습자들이 많이 먹는 초콜릿 종류로 진한 초콜릿의 영어 표현인 ‘dark chocolate’ 의 영향에 기인되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서술형 답으로는 ‘black, ‘dense’ 등이 있었다.

[2번 문항] ‘There are many (tall) buildings near my school.’

2번 문항에서는 거의 모든 학습자들이 ‘tall’, ‘high’, ‘long’, ‘lofty’ 의 선택 문항 중 ‘high’ 를 선택하였다. high라는 단어는 학습자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빈번히 사용되고 다른 많은 명사들과 자유롭게 결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합에 있어서 혼란이 있었을 거라 생각된다. 특히 ‘tall’ 이라는 형용사는 ‘사람의 키가 큰’ 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므로 ‘높은’ 이라는 의미로 ‘tall’ 보다 더 많이 쓰이는 이유로 선택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6번 문항] ‘Adam has a very (large) mouth. He can eat three at once.’

6번 문항은 97%이상의 학습자들이 ‘big’ 을 선택하였다. ‘big’ 과 ‘large’ 는 둘 다 ‘큰’ 의미를 가지지만 ‘mouth’ 와 결합할 경우에는 ‘big’ 의 의미가 달라진다. 즉 ‘big mouth’ 는 ‘입의 크기가 크다’ 가 아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습자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모르고 ‘big’ 을 선택했다는 것은 ‘large’ 보다 더 친숙하고 사용 빈도수에 있어서도 많을 수도 있지만 개별단어의 의미만을 학습하고 연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7번 문항] ‘Sue has a (narrow) face.’

7번 문항도 앞의 6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학습자들이 선택형에서 뿐만 아니라 서술형에서도 ‘long’ 을 선택하였다. 형용사 ‘long’ 이 ‘face’ 와 연결되었을 때 ‘우울한 표정’ 이란 의미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개별의미만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8번 문항] ‘My grandmother told the story in a (low) voice.’

8번 문항의 경우에는 선택문항 보기 중 ‘small, little, tiny’ 순으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오류를 범했다. 목소리나 음질 등의 크기가 ‘작은’ 은 ‘low’ 가

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작은’ 의미를 가진 형용사들을 아무런 의미적 제약 없이 맘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서술형 답으로는 ‘quite’ , ‘whispering’ 등이 있었다.

[9번 문항] ‘My son bought (sour) milk in the market. He didn’t check the expiration date.’

9번 문항은 오답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bad’ 로 나타났고 ‘rotten’ 과 ‘addled’ 도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모든 형용사가 다 ‘상한’ 의미를 갖지만 뒤에 오는 식품의 종류나 특징에 따라 결합될 수 있는 제약이 따른다. ‘rotten’ 은 보통 빵이나 과일이 상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형용사이고 ‘addled’ 는 달걀 같은 식품과 연결될 수 있다. ‘bad’ 의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식품과 연결될 수가 있으므로 사용되는 범위가 넓은 반면 형용사의 특성상 서술적 용법에 쓰이므로 명사가 뒤에 올 수 없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언어적 결합에 있어 의미적인 제약 뿐 아니라 통사적인 특징도 알아야한다는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그 밖에 학습자들은 서술형에서 ‘stale, spoiled’ 을 선택하였다.

[13번 문항] ‘The shirts are too big for him, because he has a (broad) shoulder.’

13번 문항에서는 학습자들 대부분이 ‘wide’ , ‘expanded’ , ‘broad’ , ‘large’ 중 ‘wide’ 를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문항 역시 ‘broad shoulder’ 를 하나의 연어의 개념으로 습득하지 않고 개별 단어의 의미만을 생각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으로 통사적 연결에 따른 학습자들의 문항별 오류 양상을 보자. 문항 순서 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1번 문항] ‘Is this seat (taken)?’

1번 문항의 ‘seat’ 과 동사 ‘take’ 가 함께 쓰일 때 ‘take’ 는 ‘차지하다’ 의 의미로 수동태의 형태의 통사적 구조로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 언어적 연결로 나타나지만 학습자들은 선택형에서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무시하고 ‘가득 차다’ , ‘차지하다’ 의 의미와 상통하는 ‘filled’ 를 선택하는 오류를 보였다. 서술형에서 학습자들이 선택한 오답의 목록을 보면 ‘blank, free, have’ ,등이 있었다.

[10번 문항] ‘I can’t (start) my car. The battery is dead.’

10번의 경우에는 동사와 명사적 결합에 관한 문제로 선택형에서 ‘begin’ , ‘start’ 가 ‘시작하다’ 의 의미로 공유될 수 있지만 동사와 명사 연결에 있어서 begin과 car는 연어를 이루지 않는다. 서술형 문항에서 학습자들의 단어 선택의 오류의 결과를 보면 ‘gear’ ‘use’ ‘work’ ‘move’ 등이 나타났다.

[13번 문항] ‘(If it rains), I will stay home.’

13번 문항은 모국어의 전이의 영향이 커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이다. 모국어로 ‘비가 온다면’ 이라는 번역으로 인해 많은 학습자들이 주어로 ‘rain’ 과 ‘come’ 이 결합된 문장 즉, ‘If rain comes,’ 을 선택하였고 서술형에 있어서도 같은 오류의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들이 날씨와 관련된 명사는 비인칭 주어 ‘it’ 과 연결된다는 문법을 이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함께 결합되는 어휘들의 집합과 함께 학습하지 않아서 오류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표현을 문치로서 연어의 개념으로 학습한다면 문법적으로 정확한 동시에 의미적 결합에 있어서도 완벽한 문장을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연결 상에서 나타난 오류의 결과이다. 문화적 연결은 학습자들의 모국어 영향 뿐 아니라 한국어의 특성, 문화적인 표현, 의식에 따른 전이가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번 문항] Do you want coffee or (black) tea?’

1번 문항에서는 많은 상위학습자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홍차의 ‘홍’을 붉은 색으로 인식하여 ‘red’를 선택하였다. 서술형 문항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홍차라는 동일 사물에 대해 문화권 마다 상이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표현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서술형 문항 오류에서 홍차의 상표인 동시에 홍차의 주산지명을 그대로 써 ‘Ceylon’이라고 표기한 학습자도 있었다.

[7번 문항] ‘You have good (taste).’

7번 문항은 한국어에서 ‘센스 있다’라는 영어의 정확한 표현으로 ‘sense’가 원래 영어 단어이고 한국어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로 학습자들이 영어에서도 이 표현이 원래부터 옳다고 생각한 데서 ‘You have good sense’의 오류를 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0번 문항] ‘This tea is (on the house.)’

10번 문항도 앞의 문항과 비슷한 원인으로 인한 오류가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한국식 영어 표현이 굳어져서 ‘This tea is service’라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on the house’를 각각 개별의미로 파악하면 공짜라는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데 house란 원래 술집이란 뜻으로 술집에서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것으로 ‘공짜로, 주최자 부담으로’란 의미이다. 즉 문화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므로 학습자들이 이러한 배경과 함께 ‘on the house’를 연어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15번 문항] ‘(You are very picky about food.)’

15번 문항은 음식을 가리고 잘 먹지 않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영어표현이다. 오답인 ‘Your mouth is short’를 선택한 학습자들은 ‘너 입이 짧아’를 그대로 직역해서 의미가 통하는 영어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오류를 범한 것

으로 예상된다.

[20번 문항] ‘(May I help you?)’

20번 문항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해석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다. 문항에서의 상황에서는 병원 접수대 직원은 환자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표현을 더 친숙하고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한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그대로 이 표현을 영어로 옮기면 ‘How did you come?’ 이 된다. 이 질문은 ‘병원까지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왔어?’ 로 전혀 다른 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이 표현을 한국식 표현 그대로 쓴 오류를 범한 것을 알 수 있다.

4.6 연어지도 현황 및 분석

앞에서 학생들의 연어의 이해 정도를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현직 영어교사들이 연어의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고 연어지도를 실제 수업에서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중 · 고등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총 2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에서 연어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 24 연어지도 현황]

설문 내용	응답자 의견	응답자 수	비율(%)
연어의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매우 그렇다.	3	13.6
	대체로 그렇다.	13	59.0
	보통이다.	5	22.7
	거의 그렇지 않다.	-	-
	전혀 안 그렇다.	-	-
어휘 지도 연어 형태를 자주 사용합니까?	매우 그렇다.	1	4.6
	대체로 그렇다.	8	36.4
	보통이다.	13	59.0
	거의 그렇지 않다.	-	-
	전혀 안 그렇다.	-	-

연어의 습득은 영어 학습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9	41.0
	대체로 그렇다.	10	45.0
	보통이다.	3	14.0
	거의 그렇지 않다.	-	-
	전혀 안 그렇다.	-	-
연어를 지도하는 것은 다음 어느 항목에 가장 유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읽기	5	23.0
	말하기	10	45.0
	쓰기	5	23.0
	듣기	-	-
	기타	2	11.0
연어를 잘 활용하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매우 그렇다.	11	50.0
	대체로 그렇다.	8	36.0
	보통이다.	3	14.0
	거의 그렇지 않다.	-	-
	전혀 안 그렇다.	-	-
연어지도를 하고 계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연어의 설명과 더불어 우리말 뜻을 제시한다.	6	27.0
	텍스트에 나온 연어와 더불어 해당연어와 관련된 어휘를 같이 제시한다.	8	36.0
	연어를 구성하는 단어들 간의 문법적 구조 중심으로 지도한다.	2	11.0
	해당 연어를 지도한 후 실제 활용되는 실례를 학습자들에게 보여준다.	6	27.0

먼저, 70% 이상의 교사들이 연어 개념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연어의 개념 이해도에 비해 60%정도 되는 교사들이 실제 연어를 사용하여 지도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어 학습에서 연어의 습득의 중요성을 90%이상의 교사들이 공감하고 있었는데 특히, 연어가 언어의 기능 중 말하기와 쓰기 즉, 표현적 지식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기타 의견에서 연어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모든 언어 기능을 고루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 점에서 연어를 잘 활용한다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어 지도방법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어를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 중에서 ‘텍스트에 나온 연어와 더불어 해당연어와 관련된 어휘를 같이 제시한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어의 우리말 뜻과 실제 활용되는 실례를 보여준다는 의견이 27%로 나왔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교사가 연어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제 수업에

서의 연어지도가 알고 있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설문을 통해 교사들이 학습자가 연어를 적절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연어지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습자들의 지속적인 연어 향상을 위해 영어 교사들 간의 연어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연어지도 방법에서도 활발히 교류해야 할 것이다.



V. 효과적인 연어지도 방안

본 장에서는 제 4장에서 살펴 본 연어 연구 결과 및 분석을 토대로 영어 학습자들에게 연어지도를 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학습자들의 설문을 토대로 유형별 연어지도 방안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어지도법을 제안해 보기로 하겠다.

5.1 유형별 연어 지도 방안

먼저 학습자들은 ‘형용사+명사’ 어휘적 연결에 따른 연어의 경우 가장 높은 오답률을 나타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가 어휘들의 연결에서 의미적인 제약을 인식하지 못하여 모국어 간섭을 통한 오류가 큰 원인이 되었다. 문항들에 있었던 ‘형용사+명사’ 연어 관계에서 두 어휘간의 결합이 비교적 고정적이지 않아 여러 형용사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혼란이 되었다. ‘형용사+명사’ 연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가 텍스트에서 나온 중심 어휘인 명사를 기준으로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형용사들의 목록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가능한 많이 끌어내게 하고 연어 관계가 옳은 것들을 교사가 제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What's the adjective before coffee in the first paragraph? 라는 식의 질문과 함께 연어의 개념을 학습자들에게 소개한다면 학습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텍스트에서 연어를 찾고 자신들만의 학습 전략으로 학습할 것이다. 수업시간에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연어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연어 관계에 빈번히 노출시킴으로써 연어를 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보다 자연스럽게 습득될 것이다. ‘형용사+명사’의 어휘적 연결을 학습자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은 교사가 이러한 연어가 나왔을 때 학습자들에게 선택 의문문(or-question)을 이용하는 방

법인데 이는 흔히 사용하는 ‘yes/no question’보다 학습자들을 더 능동적으로 발화하게 만든다. 가령 텍스트에 ‘strong coffee’ 라는 연어가 나왔을 때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Do you like strong coffee?’ 보다는 ‘Do you like strong coffee, or weak coffee?’ 라고 질문하면 학습자들은 다시 이 연어를 이용하여 발화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strong coffee와 반대의 의미를 가진 weak coffee의 연어 관계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이러한 연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게임, 활동 등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용사+명사’의 연어를 제시할 때 좀 더 큰 담화 안에서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보다 큰 맥락 안에서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억에 도움을 준다.

‘통사적 연결’에서의 연어의 지도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연어와 문법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어휘와 문법은 그 관계가 이분법적으로 생각되었고 각각 독립적으로 지도되었다. 예를 들면 ‘criticize + 전치사(for) ~ ing’ 라는 문법 구조 안에 흔히 오는 어휘를 무시하고 이러한 통사적 패턴만 초점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교수에서는 ‘slot-and-filler approach’를 사용하여 slot을 채워 넣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word grammar approach에서는 단어를 초점을 두고 어휘 사용의 예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통사적 제약에 주의를 이끌어 문법에 접근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Koreans are criticized for spending too much time at work.’ 의 문장처럼 문법 구조가 어휘들의 결합 안에 포함된 문장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휘와 문법 구조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다. 이처럼 통사적 연어의 지도에 있어서도 어휘 덩어리 (lexical chunk) 안에서 구조의 패턴을 자연스럽게 습득 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서술형 설문지 오류 중 통사적 연결 13번 문항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를 ‘If it rain comes,~’ , ‘If rain comes,~’ ,라는 오답을 보였다. 이는 if라는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오면 시제가 현재형으로 온다는 것과 If~ 문법적 패턴은 알고 있지만 흔히 쓰이는 어휘의 결합 안에서 구조적 패턴이 있는 덩어리로 학습하지 않아서 올바른 어휘선택을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즉 모국어의 간섭으로 오히려 문법적 오류까지도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통사적 구조나 문법적 패턴이 이미 포함된 언어로서 제시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언어를 일반화 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take one’ s time’ 보다 text에서 나온 그대로의 일반화 시키지 않은 표현인 ‘take your time’ 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일반화 시킨 언어는 오히려 학습자들이 실제 사용할 때 그것을 바로 기억에서 꺼내서 사용할 때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조작함으로써 문법적 오류나 어색한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사적 결합에 있어서 9번, 10번 문항처럼 의미적으로 거의 비슷한 동사들은 한국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오류를 나타낸다. 영어에서 start, begin, initiate 같은 단어들은 한국어에서 ‘시작하다’ 라는 한 단어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영어단어들을 개별적으로 학습하면 학습자들은 의미가 같다고 인식하여 그것을 아무런 의미적, 통사적 제약 없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다. 이는 말하기나 쓰기 같은 산출적 능력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언어장(collocational field)에서 가르치고 각 단어들의 쓰임이 있는 예를 보여주는 문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tell, say, speak를 동시에 가르치되 각각의 차이점을 세세히 설명하기 보다는 각 단어의 예시들을 여러 방법으로 제시해서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습득시키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언어는 그것의 관용적인 특성과 학습할 언어의 다른 문화, 의식 양상 때문에 비원어민 화자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문화적 언어는 특정문화의 상투적 제약을 받으므로 문화적 능력의 결여는 학습자들이 문화적 영향을 받는 언어들을 습득하는데 실패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문화적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들의 결합 뿐 아니라 화용, 문화적인 쓰임 까지도 가르쳐야 한다(Lewis, 1993). Lewis는 많은 언어들이 화용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황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routine check-up’ 은 ‘visit the doctor or dentist’ 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설문지에서 ‘May I help you?’ 는 영어에서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으로 보통고객과 점원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주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이고 사회적 관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표현임을 직시해줄 필요가 있다. 10번 문항인 ‘This tea is on the house’ 는 학습자

들이 on the house라는 문화적인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교사가 이러한 이 단어들이 오게 된 유래를 말해주고 관용어처럼 이러한 문화적 연어를 지도한다면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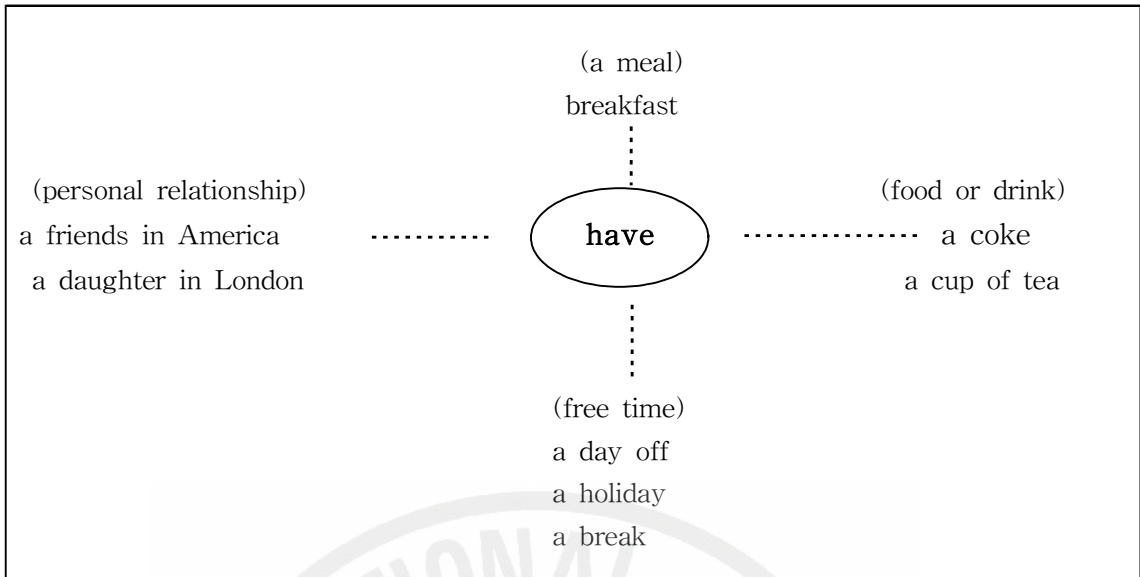
5.2 의사소통을 위한 연어 지도

앞에서 학습자들의 설문 결과를 통해 연어 이해에 있어 연어의 표현적 지식이 수용적 지식보다 훨씬 낮은 이해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연어의 이해에 있어서도 높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의사소통을 위한 연어의 사용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연어 이해 뿐 아니라 사용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연어지도가 필요하다.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연어의 지식 습득이 먼저 선행되고 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연어지도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학습자들이 연어의 지식 습득과 이해를 위하여 교사는 텍스트에 나온 연어를 학생들로 하여금 표시를 하게 한다. 가령, 그 연어 위에 색깔을 칠하게 하거나 밑줄을 긋는 등의 시각적인 표시를 하게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문맥 상에서의 의미를 모국어로 번역을 시키거나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 다음으로 교사는 의미를 설명하고 다양한 연어 결합의 양상을 제시한다. 결합의 제시 방법 중 유혜란(2006)은 다음과 같은 패턴 배열을 제시하였다.

Let's	_____	have a break, shall we?
	_____	get the early train.
	_____	go to the bank first.
	_____	_____



이 패턴을 도식화하여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은 'have'라는 동사가 다양한 어휘와 연어 관계를 한눈에 알 수 있고 효과적으로 연어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다른 활동으로는 'collocation game' 을 들 수 있다.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연어의 다양한 유형의 결합양상을 추론하여 연어 지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절차

- 교사는 다양한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될 수 있는 명사를 선택한다.
(연어 사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칠판에 명사를 제외하고 이 명사와 연어 관계인 일련의 형용사와 동사들을 제시한다.
- 학생들에게 칠판에 제시된 형용사와 동사들을 읽게 하고 이들과 결합될 수 있는 공통된 명사를 추측하도록 한다.
- 답을 아는 학생들은 손을 들고 자유롭게 답을 말한다.
- 정확한 명사가 나오면 단어들을 결합시켜 학생들에게 강조한다.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plain, dark, bitter, milk, bar of : **chocolate**

2. collect, provide, conceal, gather, withhold : **information**
3. huge, growing, profitable, export, domestic, black : **market**

언어의 결합은 명사를 중심으로 동사와 형용사 결합 뿐 아니라 동사가 중심이 되서 함께 결합되는 부사나 명사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즉, 교사가 임의대로 자유로운 결합을 가지고 게임을 진행 할 수 있다.

앞서 연어지도를 학습자들이 연어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다음은 학습자들이 연어를 직접 생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연어지도 방법이다.

먼저 영작을 통한 연어지도로 대화의 맥락 안에서 연어가 포함된 문장을 학습자들에게 영작을 해보고 그 표현을 짝과 함께 말하기 연습을 하는 활동이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단어들을 사용하여 대화의 상황에 맞게 채워 넣어 보세요.

1. A: Wow! You changed your new hair style. I like it!

B: _____.(have/ cut)
나 어제 머리 잘랐어.

2. A: What happened to your ears?

B: _____.(have/ pierced)
나 어제 귀 뚫었어.

다음은 텍스트(text)를 이용하여 텍스트 안의 연어 표현들을 이해하여 소집단들이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활동이다. 텍스트는 언어적 표현이 풍부한 자료를 선택하고 교과서 뿐 만 아니라 신문, 인터넷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활동을 하기 위해 먼저 학습자들을 소집단으로 나눈다. 학습자들 간 협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우수학습자와 부진 학습자를 각 집단에 고루 배치하여 상호 협동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의 제목은 ‘reconstructing the content’ 으로 이를 이용한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 **목표**

학습자들이 텍스트 안에서의 연어를 이해하고 연어장(collocational field) 안에서 단어

들을 배열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있다.

◎ 절차

- 모든 학습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 신문, 텍스트 등의 독해자료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한다.(단, 독해자료는 너무 길지 않고 다양한 연어를 포함한 것을 선택한다.)
- 자료를 읽은 후 원본에 있었던 내용을 동료들과 함께 학습지 상에서 구성한다.
(학습지 상에서 원본에 있는 몇몇 단어들을 연어 형태가 아닌 독립적으로 제시한다)
- 활동이 끝나면 각 소그룹의 결과물들을 모든 학습자들에게 보여준다.
- 교사는 틀린 연어 표현들을 교정해주고 중요한 표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The example of reading material>

My Weekend

Last week my family spent the weekend in a national park which is far away from the town. All of us were interested in camping so we put up a tent near a stream in the forest. After dinner, my father who is keen on fishing took my brother to the stream. While walking to that place they had to be careful of poisonous plants and animals. My mother was bored with waiting for them so she went to sleep. Being alone, I was worried about them, and I felt very pleased when they returned. Because of all the mosquitoes, my father said that he was afraid of catching malaria, so he made us all go to bed early. Nevertheless, I had a good time.

http://www.moobankru.com/Eric/Adjective_collocations.htm

<worksheet>

※ Use words below to construct the contents.

< spend, put up, time, poisonous, keen on, plants and animals, weekend, afraid of, fishing, have, national, town, catching, tent, good, far, bored, way, with >

<hr/> <hr/> <hr/>

즉 ‘reconstructing the content’ 활동을 요약하면 학습자들은 소집단의 구성원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텍스트 안의 담화 내에서의 연어들이 있는 문장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연어를 독립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화 내에서의 사용을 이해하고 이를 다시 표현해 봄으로써 연어의 생산적 지식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는 다른 텍스트안의 연어들을 재정리하고 그 밖에 그 연어들과 결합 될 수 있는 다른 연어들의 예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폭넓은 연어지식을 제공 할 수 있다.

다른 활동으로는 ‘collocation game’ 을 들 수 있다.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연어의 다양한 유형의 결합양상을 추론하여 연어 지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절차

- 교사는 다양한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될 수 있는 명사를 선택한다.
(연어 사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칠판에 명사를 제외하고 이 명사와 연어 관계인 일련의 형용사와 동사들을 제시한다.
- 학생들에게 칠판에 제시된 형용사와 동사들을 읽게 하고 이들과 결합될 수 있는 공통된 명사를 추측하도록 한다.
- 답을 아는 학생들은 손을 들고 자유롭게 답을 말한다.
- 정확한 명사가 나오면 단어들을 결합시켜 학생들에게 강조한다.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plain, dark, bitter, milk, bar of : **chocolate**
2. collect, provide, conceal, gather, withhold : **information**
3. huge, growing, profitable, export, domestic, black : **market**

언어의 결합은 명사를 중심으로 동사와 형용사 결합 뿐 아니라 동사가 중심이 되서 함께 결합되는 부사나 명사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즉, 교사가 임의대로 자유로운 결합을 가지고 게임을 진행 할 수 있다. 배운 언어들은 문장 중심이나 담화중심에서의 예들을 제시한다.

위의 활동처럼 언어 지도를 위해 교사가 학습자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다양한 언어 활동을 구성하고 지도안을 만들 수 있다. 교사 설문에서 효과적인 언어 지도방안에 대한 교사의 의견들은 다양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언어를 여러 문맥상에서 사용하는 상황을 풍부하게 제공해준다.
2. 학습자들이 흔히 범하는 Konglish적인 언어 표현이 실제 언어 표현과 비교하며 가르친다.
3. 어휘의 유래나 그 단어에 갖는 문화적인 요소에 관하여 설명한다.
4. Situational English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 도입 시 언어를 하나의 활동으로 가르친다.
5. 언어가 들어 있는 짧은 문장을 다양하게 읽어주거나 써준다.
6. 문맥을 통해서 그 언어의 의미를 추론하게 한다.
7. 배운 언어를 이용하여 짧은 글짓기를 한다.
8. 대화나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교사가 언어의 입력을 많이 한다.

요약하면 교사들의 공통된 언어 지도 방안으로 언어를 학습자들에게 입력을 많이 하고 한국어에 의해 범할 수 있는 언어 오류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쓰거나 읽기와 관련된 언어 활동들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문화적인 요소를 지닌 언어는 그 유래나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을 설명한다고 답하였다.

VI. 결론

6.1 결론

언어의 사용은 우리가 매일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에서 즉 구어나 문어 텍스트(text)에서 고정된 표현으로써 약 70%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언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전통적인 개별적 어휘지도와 사용 맥락을 무시한 어휘 학습으로 언어에 대한 지도는 소홀히 되어져 왔다. 최근 언어가 어휘연구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언어의 수동적인 이해 정도만을 알아보는 실험들이었고 수준별에 따른 학습자들에 대한 언어의 이해 정도 연구는 많이 부족하였다. 최근 언어 학습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화용적,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요소를 인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화용적인 요인들이 포함된 언어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연구 대상을 수준별로 나누어서 대상에 따른 언어지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중 · 고등학생 학습자들의 언어이해 정도를 연구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학습자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생산적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고 문화적, 사회적 요소를 포함한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언어의 이해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이었던 중 · 고등학생 학습자의 언어 이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중학생 학습자의 경우 수용적 지식에 해당하는 선택형에서 문항의 50% 이하의 점수를 획득하였고 고등학생 학습자의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많은 학생들이 50% 이상의 수준에 분포됨을 알 수 있다. 언어지식이 영어사용 빈도에 많이 노출되고 상위수준의 학습자일수록 높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서술형에서는 중 · 고등학생 학습자 모두 선택형에서 맞은 점수보다 훨씬 낮았는데 이는 의사소통에서 직접 사용하고

발화하기 위한 표현적 지식으로써 연어지식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고등학생 학습자의 수준별 집단에 따른 연어지식 측정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고등학생 학습자 모두 상위 학습자로 갈수록 연어 지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어지식이 많으면 영어 성취도에서도 높은 것을 의미하며 학력의 정도와 연어지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각 연어 유형별 즉, ‘형용사+명사’, ‘통사적’, ‘문화적’ 연어 중 중·고등학생들의 이해가 높은 순서는 ‘통사적’ 연어, ‘문화적’ 연어, ‘형용사+명사’ 연어였다. 이는 학생들이 ‘통사적’, ‘문화적’ 연어와 달리 ‘형용사+명사’ 연어는 명사 앞에 오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많고 각각의 세세한 의미적인 차이점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결에 있어서도 단어 간의 결합이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였다. 이와 달리 ‘통사적’ 연어는 단어 간 결합의 제약이 많고 그로 인해 올 수 있는 단어들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용사+명사’ 연어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넷째, 연어 유형별에 따른 수준별 연어 이해 정도를 보면, 중학생 학습자는 상·중·하 각각 ‘형용사+명사’ 연어 이해 정도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문화적’ 연어, ‘통사적’ 연어 순이었다. 이는 모든 학습자가 ‘형용사+명사’ 연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은 단어들의 결합이 고정적이지 않아 학생들이 모국어와 비교하여 뜻이 통하는 형용사들을 연어적 결합을 무시하여 임의적으로 배열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다섯째, 문항별 연어 이해정도를 보면 대부분의 문항들이 모국어의 간섭에서 기인한 오류들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한국 생활방식에 의한 의식의 차이와 한국어의 특성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사가 연어의 개념을 알고 있지만 실제 수업에서의 연어지도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연어 습득의 필요성과 연어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많은 교사가 동감하고 있다는 것을 설문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학습자들의 설문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연어의 지식을 높이고 이를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도방안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효과적인 지

도방법은 학생들이 텍스트나 다양한 곳에서 나타난 언어들을 강조하고 모국어 간섭이 일어날 만한 언어들을 주의 시켜준다. 또한 다양한 언어 결합관계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언어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배운 언어를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맥 안에서의 표현들을 직접 영작해보게 하거나 짝과 함께 말하기 연습을 하게 한다. 아울러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 언어가 풍부하게 들어간 담화, 텍스트를 협동하여 문장을 완성, 대화 연습을 하게하고 게임을 통해 학습자들의 언어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 간의 언어의 중요성을 서로 인식하고 학습자들에게 맞는 다양하고 적절한 지도 방법을 교류, 능동적으로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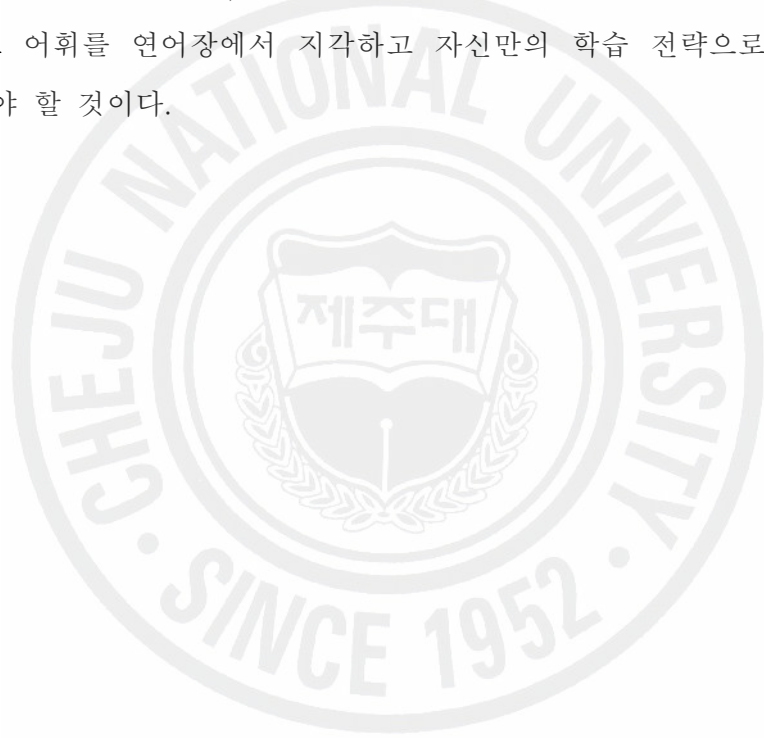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의 입력(input)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언어가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의 결과에서 입증된 만큼 학습자들에게 개별적인 어휘보다 언어 입력을 통해 학습자들인 자연스럽게 언어를 내재화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입력은 단지 양적인 것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사는 코퍼스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은 언어와 난이도에 맞는 언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입력뿐 아니라 교사는 학습자들이 사용한 언어의 출력(output)에도 신경을 쓰고 학습자들이 언어를 많이 출력하게 도와줘야 한다. 이는 EFL 교실 상황에서는 서로 대화를 하는 학습자들이 비원어민이므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출력은 한정되고 다양하지 못한 표현일 수밖에 없다. 적절한 산출은 또 다른 학습자의 입력이 될 수 있으므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교사도 교실상황에서 다양한 언어를 이끌 수 있는 교수 방법을 연구, 지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언어를 지도하는데 있어 모국어로 인한 간섭이 생길 만한 언어들을 교사가 선별하여 학습자들의 정확한 언어의 사용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주의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보다’ 를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see an exam’ 이라고 잘못된 표현을 하기 쉽다. 따라서 교사는 올바른 표현인 ‘take an exam’ 을 제시하고 ‘exam’ 과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를 함께 보여준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하고 올바른 언어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자들이 연어의 이해 뿐 아니라 적합한 상황과 문맥 안에서 연어를 표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들이 연어를 단지 수동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실제 의사소통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연어를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의사소통을 위한 연어사용을 위해 실제적인 연어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발화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연어는 학습자의 의사소통에서 유창성뿐 아니라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연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실상황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 서 교사는 학습자가 연어에 대한 지각을 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연어를 제시하고 , 연어의 효과적인 지도, 학습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학습자도 의식적으로 어휘를 언어장에서 지각하고 자신만의 학습 전략으로 연어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정원. (1993). *영어 어휘의 문화적 세분화 유형*.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 강필경. (2006). *어휘 접근법을 통한 영어 어휘 습득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경남.
- 권양희. (2005). *언어를 통한 어휘학습이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어휘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낙복. (2005). 영어 언어의 고찰과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 *외국어교육*, 12(2), 141-165.
- 김시준. (2008). *언어중심 어휘지도가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김영숙. (2004). *영어과 교육론: 교과 지도법*. 서울: 한국문화사.
- 김은정. (2006). *중학생의 영어언어의 이해와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경북.
- 문정옥. (2003). *학습활동을 통한 어휘교육*.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박소희. (2003). *Lexical collocation use by Korean EFL college learners : 한국대학생들의 어휘적 언어 사용*.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손영희. (2007). *언어학습과 쓰기와의 관련성 고찰 :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경남.
- 송영주. (2008). *고등학교 영어학습자의 언어사용능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신수희. (2000). *한국 영어학습자의 언어사용능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신철안. (1987). *영어학습에 있어서 모국어 습관의 장애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오세목. (2004). *영어 언어 지도가 고등학생의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유혜란. (2006). *어휘 접근법을 이용한 영어 어휘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충남.

- 윤주희. (2007). *Phrasal Verbs*를 통한 *collocation* 활용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 임정진. (2007). *영어 교과서 코퍼스 개발을 통한 언어 중심 어휘 활용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정복희. (2007). *언어를 통한 어휘지도가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충남.
- 정선옥. (2000). *효율적인 영어어휘지도를 위한 수업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부산.
- 최인철. (1998). *실용 영어법*. 서울: 현대영어사.
- 현태덕. (2004). Improving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by teaching collocations. *한국영어언어과학협회*, 13, 89-103.
- Alice, D. (2005). *Metaphor and corpus linguistic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achman,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hns, J., & Eldaw, M. (1993). *Should we teach EFL students collocations?*. *System*, 21(1). 101-114.
- Benson, M., Benson, E., & Ilson, R. (1986). *The BBI combinatory dictionary of English*. Amsterdam: John Benjamins.
- Bolinger, D., & Sears, D. A. (1968). *Aspects of language*. New York : Harcourt Brave Jovanovich Inc.
- Brown, H. D. (2007). *Teaching by principle: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Y: Person Education.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Carter, R., & McCarthy, M. (1988), *Vocabulary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Longman.
- Conzett, J. (2000). Integrating collocation into a reading and writing course. In Lewis, M. (Ed), *Teaching Collocation*. (pp.125-173). Hove,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Cowie, A. P. (1981). The Treatment of collocations and idioms in learner's dictionaries. *Applied Linguistics*, 2, 223-235.
- Cruse, D. A. (1991).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rth, J. R. (1951). Modes of meaning. *Essay and Studies*, 4, 118-149.
- Ferenando, L. (2000) *Teaching collocations*. Hove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Hill, J. (2000). Revising priorities: from grammatical failure to collocational success. In Lewis M. (Ed), *Teaching Collocations*. (pp.57-69). Hove,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Howarth, P. (1998). Phraseology and second language proficiency. *Applied Linguistics*, 19, 24-44.
- Hultfors, P. (1986). *Reactions to non-native English: native English speakers assessments of errors in the use of English made by non-native users of the language*. Stockholm, Coronet Books Inc.
- Huang, L. (2001). Knowledge of English collocation: An analysis of Taiwanese EFL learners. In Luke, C. & Rubrecht, B. (Ed.), *Texas paper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Selected Proceedings from the Texas Foreign Language Education Conference*. (pp.92-116).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 Hymes, D. (1973).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B Pride, & Janet Holmes, (Eds.), *Sociolinguistics* New York, Penguin Books.
- Kelly, L. (1969). *Centuries of language teaching*. Rowley, MA: Newbury House.
- Krakowian, B. (1984). *The teacher's mediation in students' vocabulary learning*. English Teaching Forum.
- Larsen-Freeman, D. (1986).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ufer, B. (1990). *What's in a word that makes it hard or easy: Some intralexical factors that affect learning of words*: In N. Schmitt & M. McCarthy. (Eds.), *vocabulary : description, acquisition, and pedagogy* Cambridge : Cambridge

- University press.
- Lewis, M. (1993). *The lexical approach*. Hove: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Lewis, M. (1997). *Implementing the lexical approach: Putting theory into practice*. Lond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Lewis, M. (2000). *Teaching collocations*. Hove: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Ludwig, J. (1984). Vocabulary acquisition as a function of word characteristics.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40, 5: 552-562.
- Martin, M. (1984). Advanced vocabulary teaching: The problem of synonym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68(2): 130-137.
- Meara, P. (1980). Vocabulary acquisition: A neglected aspect of language learning. *Language Teaching & Linguistics: Abstracts* 13:4, 221-246.
- Nattinger J. (1988). Some current trends in Vocabulary teaching. In R. Carter & M. McCarthy (Eds.), *Vocabulary and language teaching* (pp. 62-82). London: Longman.
- Nattinger, J. & Decarrico, J. (1992). *Lexical phrases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unan, D. (1999). *Second Language Teaching & Learning*. Heinle & Heinle Publishers.
- Palmer, H. E. (1933). *Second interim report on English collocations*. Tokyo: Kaitakusha.
- Rivers, W. M. (1968).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bins, R. H. (1964).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 W. A. Renandya (Eds.). (2002),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An anthology of current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 Rodgers, T. S. (1986).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dzca. B. J, Channell, Y. P. & Oatyn, P.(1981). *The words you need*. London:

MacMillan.

- Schmidt, R. (1981). The role of consciousnes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pplied Linguistics*. 11(2), 17-46.
- Seal, B. D. (1991). Vocabulary learning and teaching.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 296-311). New York: Heinle & Heinle Publishers.
- Sinclair, J. (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ubbs, M. (1995). Collocation and semantic profiles. *Functions of Language*, 2(1), 23-55.
- Wardhaugh, R. (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Second Edition.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 Widdowson, H. G. (1978). Knowledge of language and ability for use. *Applied Linguistics* 10, 128-137.
- Wilkins, D. (1972).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London: Edward Arnold.

<Abstract>

A Study on the Knowledge of English Collocation and Its Teaching Methods
in Korean Secondary School

Park, Hyun Ju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Changyong

Lexic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in successful communication. In the aspects of second language teaching, however, vocabulary teaching has been focused on form and use of words in communicative context was ignored. In addition, vocabulary was regarded as an individual word. Accordingly, lexical approach which views words as a chunk appeared in the 90's. In lexical approach, the language consists of meaningful chunks and by recognizing these chunks, learners develop not only their vocabulary knowledge but also communicative competence. Collocation is thought to be the most important types of lexical phrases in lexical approach. It is meant the habitual association of a word in a language with other particular words in sentences. According to several studies, it is turned out that collocation is helpful to improve accuracy as well as fluency in language learning. Considering studies on collocation, most studies focused only on learners' receptive collocation knowledge and few studies on use of collocation in cultural context has been done.

Therefore, five related research questions were focused in this study.:

First, how much do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ave collocation competence, especially, productive knowledge of colloca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8

Productive knowledge included speaking and writing, two critical components of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Second,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their English proficiency and the collocational ability?

Third, what kind of collocation types are students acquainted with well?

There are three types of collocation in this study: Type I (Adjective–Noun collocation), Type II (Syntactic collocation), and Type III (Cultural collocation).

Forth, how much do teacher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llocation in language learning and how well is collocation taught in vocabulary teaching?

Lastly, what are effective teaching methods of English collocation?

Concerning this study, four related research questions were performed.

In order to answer to those questions, 16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chosen as the subject group and they were given 50 collocations questions. In the questionnaire, three types of collocations are composed: Type I made up of 15 questions, type II made up of 15 questions, and type III made up of 20 questions. Multiple choice questions for type I, II and open-ended questions for type III are administered. The analysis and findings of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ollocation competence was quite low, particularly, in productive knowledge of colloc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relatively high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and their collocation ability.

Third, among the three types of collocation, the knowledge of type I was the lowest.

Fourth, most of English teachers in the study agreed with the importance of collocation teaching and significant effect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spite of its effectiveness, the collocation teaching is not carried out well.

Based on thos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collocational competence of the students is insufficient. Therefore, to improve not only students' collocational competence but also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students should recognize importance of collocations in their English learning.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hat effective teaching methods of collocation for improving learners' productive knowledge

should be developed and continuous collocation research should be accompanied.



<설문지>

<부록 1>

본 설문지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어휘 활용에 대한 인식 정도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것이며, 어휘 활용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언어 교육학적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 결과에 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문의는 본 연구자에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박 현 주

E-mail: wasaby83@hanmail.net

phone: 010-3077-3030

I. 다음 문장에서 가장 적합한 단어를 고르세요.(1-15)

1. 나는 진한 커피를 마시면, 시험에 집중할 수 없다.
If I have () coffee, I cannot concentrate on a test.
① thick ② strong ③ dark ④ deep
2. 나의 학교 주변에는 높은 빌딩이 많이 있다.
There are many () buildings near my school.
① tall ② high ③ long ④ lofty
3. 그는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을 선호한다.
He prefers to climb () mountains.
① tall ② high ③ big ④ huge
4. 나는 예전에 심하게 담배를 피우곤 했다.
I used to be a () smoker.
① strong ② heavy ③ much ④ big
5. 그녀는 아름다운 검은 눈을 가지고 있다.
She has beautiful () eyes.
① black ② dark ③ brown ④ opaque
6. Adam의 입은 아주 크다. 그는 세 개의 바나나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다.
Adam has a very () mouth. He can eat three bananas at once.

- ① large ② big ③ round ④ broad

7. Sue의 얼굴은 길다.

Sue has () face.

- ① long ② narrow ③ prolonged ④ lengthy

8. 내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My grandmother told the story in a () voice.

- ① small ② low ③ tiny ④ little

9. 내 아들은 상점에서 상한 우유를 샀다. 그는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

My son bought () milk in the market. He didn't check the expiration date.

- ① sour ② addled ③ bad ④ rotten

10. 심한 비 때문에, 우리는 소풍을 가지 못했다.

We couldn't go on a picnic because of () rain.

- ① much ② strong ③ heavy ④ big

11. Liz의 머리숱이 많아서 더 큰 크기의 머리핀이 필요하다.

Liz needs a large size of hair pin, because she has () hair.

- ① large ② much ③ thick ④ big

12.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Driving a car at () speed is dangerous.

- ① fast ② high ③ rapid ④ over

13. 그는 어깨가 넓어서 셔츠가 너무 꼭 낀다.

The shirts are too tight for him, because he has a () shoulder.

- ① wide ② expanded ③ broad ④ large

14. 그는 평발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He's got an inferiority complex about his () feet.

- ① plain ② spreaded ③ even ④ flat

15. 나는 시력이 안 좋다.

I have () eyesight.

- ① low ② weak ③ faint ④ little

II. 다음의 문항들에서 영어에 맞는 표현을 선택하세요. (1-15)

1. Is this seat (filled / taken?)
이 자리 비어있어요?
2. May I (borrow / use) your telephone in your office?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3. How did you (see/ do) on the exam?
오늘 시험 어땀니?
4. Would you (hear/ do) my favor?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어요?
5. How (many/ large) is Seoul's population?
서울의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6. The economic situation is (raising / improving).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7. My mom always (speaks / tells) me to clean my room.
엄마는 항상 나에게 내방을 청소하라고 하신다.
8. (I cut my hair./ I had my hair cut.)
나는 머리를 잘랐다.
9. We (left / departed) the house at seven.
우리는 7시에 집을 떠났다.
10. I can't (start / begin) my car; the battery is dead.
배터리가 다 되어서 나는 차 시동을 걸 수 없다.
11. I am going to (hear / listen) to music for fun.
나는 재미로 음악을 들을 거야.
12. He filled (water into a bottle/ a bottle with water.)
그는 병에 물을 채웠다.
13. (If rain comes/ If it rains), I will stay home.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14. (How/ What) do you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5. I (want to be/ wish for) a great professor.

나는 위대한 교수가 되기를 원해.

Ⅲ. 다음의 문항들에서 영어에 맞는 표현을 선택하세요. (1-20)

1. Do you want coffee or (black / red) tea?

커피나 홍차 드실래요?

2. (The price is high/ The price is expensive.)

가격이 비싸.

3. He (kicked his girl friend./ dumped his girl friend.)

(연인이었던 두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여자 친구를 차버렸다.

4. (Please eat a lot./ Help your self.)

마음껏 드세요.

5. (Get real./ Break from the dream.)

꿈 깨!

6. How can I (solve my stress/ get rid of my stress)?

어떻게 스트레스 풀 수 있을까?

7. (You have good sense./ You have good taste.)

너 참 센스 있다.

8. (He has a dirty mouth./ His mouth is rough.)

그는 입이 거칠어.

9. (You know my mind very well./ You read my mind)

당신은 제 마음을 잘 아시네요.

10. (This tea is service./ This tea is on the house.)

이 차는 서비스입니다.

11. My uncle lives (next door/ next house.)
내 삼촌은 옆집에 살아.
12. (Good bye./ Go well.)
잘 가.
13. (Someone is talking about me./ My ears are burning.)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누가 내말을 하는 가 본대.
14. (I have no power./ I am exhausted.)
(오늘 일하느라) 나 힘이 다 빠졌다.
15. (Your mouth is short./ You're very picky about foods.)
(음식을 앞에 두고) 너는 입이 너무 짧아.
16. (My time is urgent./ I'm pressed for time.)
(레포트 제출에 임박하여) 시간이 긴박해.
17. (His eyes are so dark about the world./ He doesn't know about the real world.)
그는 세상 물정 몰라.
18. (My condition is not good. / I don't feel well)
몸 상태가 안 좋아요.
19. (It's cool./ That's a lame joke)
(농담을 했는데) 썰렁하군.
20. (How did you come here?/ May I help you?)
(병원 접수대에서 직원이)어떻게 오셨어요?

- 수고하셨습니다. -

<부록 2>

<설문지>

본 설문지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어휘 활용에 대한 인식 정도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것이며, 어휘 활용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언어 교육학적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 결과에 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문의는 본 연구자에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박 현 주

E-mail: wasaby83@hanmail.net

Phone: 010-3077-3030

I. 다음 문장에서 가장 적합한 단어를 써 넣으세요.(1-15)

1. 나는 진한 커피를 마시면, 시험에 집중할 수 없다.
If I have () coffee, I cannot concentrate on a test.
2. 나의 학교 주변에는 높은 빌딩이 많이 있다.
There are many () buildings near my school.
3. 그는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을 선호한다.
He prefers to climb () mountains.
4. 나는 예전에 심하게 담배를 피우곤 했다.
I used to be a () smoker.
5. 그녀는 아름다운 검은 눈을 가지고 있다.
She has beautiful () eyes.
6. Adam의 입은 아주 크다. 그는 세 개의 바나나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다.
Adam has a very () mouth. He can eat three bananas at once.
7. Sue의 얼굴은 길다.
Sue has () face.
8. 내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My grandmother told the story in a () voice.
9. 내 아들은 상점에서 상한 우유를 샀다. 그는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

My son bought () milk in the market. He didn't check the expiration date.

10. 심한 비 때문에, 우리는 소풍을 가지 못했다.

We couldn't go on a picnic because of () rain.

11. Liz의 머리숱이 많아서 더 큰 크기의 머리핀이 필요하다.

Liz needs a large size of hair pin, because she has () hair.

12.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Driving a car at () speed is dangerous.

13. 그는 어깨가 넓어서 셔츠가 너무 꼭 낀다.

The shirts are too tight for him, because he has a () shoulder.

14. 그는 평발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He's got an inferiority complex about his () feet.

15. 나는 시력이 안 좋다.

I have () eyesight.

II. 다음 문항들에서 영어에 맞는 표현을 써 넣으세요. (1-15)

1. Is this seat ()?.

이 자리 비어있어요?

2. May I () your telephone in your office?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3. How did you () on the exam?

오늘 시험 어땠니?

4. Would you () my favor?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어요?

5. How () is Seoul's population?

서울의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6. The economic situation is ().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7. My mom always () me to clean my room.

엄마는 항상 나에게 내방을 청소하라고 하신다.

8. ().

나는 머리를 잘랐다.

9. We () the house at seven.
우리는 7시에 집을 떠났다.
10. I can't () my car; the battery is dead.
배터리가 다 되어서 나는 차 시동을 걸 수 없다.
11. I am going to () to music for fun.
나는 재미로 음악을 들을 거야.
12. He filled ().
그는 병에 물을 채웠다.
13. (), I will stay home.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14. () do you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5. I () a great professor.
나는 위대한 교수가 되기를 원해.

Ⅲ. 다음 문항에서 알맞은 영어 표현을 써 넣으세요. (1-20)

1. Do you want coffee or () tea?
커피나 홍차 드실래요?
2. ().
가격이 비싸.
3. He ().
(연인이었던 두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여자 친구를 차버렸다.
4. ().
마음껏 드세요.
5. ().
꿈 깨!
6. How can I ()?
어떻게 스트레스 풀 수 있을까?
7. ().
너 참 센스 있다.
8. ().
그는 입이 거칠어.
9. ().

이 설문지는 현직 영어 교사들의 연어(collocation)지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자료는 학문적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소신껏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박현주 연락처: email: wasaby83@hanmail.net

※ 참고 사항 (설문의 이해를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

연어(collocations)란, 개별적인 어휘 항목으로 간주되는 둘 이상의 어휘의 습관적인 결합 또는 연결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You have to **take medicine** everyday. (not, eat medicine) / She is a **heavy smoker**. (not, much smoker)등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연어(collocation)입니다.

※ 해당 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현재 담당 학생]

중학생 () 고등학생 ()

1. 영어 학습에서 어휘 지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대체로 높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높다 ⑤ 매우 높다.
2. 영어 학습 지도에 있어 어휘지도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안 그렇다.
3. 어휘지도 방법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안 그렇다.
4. 교사가 풍부한 어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영어지도에 중요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안 그렇다.
5. 우리 혹은 서구 문화관련 어휘를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안 그렇다.
6. 어휘 지도에 있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① 어휘의 발음 ② 어휘의 의미 ③ 어휘의 결합관계 ④ 어휘의 실제 활용
⑤ 기타()
7. 어휘 지도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어근과 접사를 이용하여 가르친다.
- ②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를 함께 지도한다.
- ③ 개별 단어의 우리말 뜻을 정확히 주지시켜 준다.
- ④ 학습 단어와 결합하여 쓰이는 어휘를 함께 익히도록 지도한다.
- ⑤ 학습 단어를 문맥 안에서 가르치되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의미를 강조한다.
- ⑥ 기타 ()

8. 선생님은 연어의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안 그렇다.

9. 8번에서 연어를 알고 있다고 대답하셨다면 어휘 지도 언어 형태를 자주 사용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안 그렇다.

10. 연어의 습득은 영어 학습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안 그렇다.

11. 연어를 지도하는 것은 다음 어느 항목에 가장 유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읽기 ② 말하기 ③ 쓰기 ④ 듣기 ⑤ 기타 ()

12. 연어를 잘 활용하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안 그렇다.

12. 연어지도를 하고 계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중복 가능)

- ① 연어의 설명과 더불어 우리말 뜻을 제시한다.
- ② 텍스트에 나온 연어와 더불어 해당연어와 관련된 어휘를 같이 제시해 준다.
- ③ 연어를 구성하는 단어들 간의 문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지도한다.
- ④ 해당 연어를 지도한 후 실제 활용되는 실례를 학습자들에게 보여준다.
- ⑤ 기타()

13. 연어(같이 사용되는 어휘들)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